

안티레티코스
악한 생각과의 싸움

EVAGRIO PONTICO
CONTRO I PENSIERI MALVAGI
Antirrhethikos

© 2005 by Edizioni Qiqajon s.r.l.

This book was originally published in Italian by Edizioni Qiqajon s.r.l.,
Frazione Bose 6, I-13887 Magnano (BI), Italy,
and is published in this edition by license of Edizioni Qiqajon s.r.l.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by Ho Song-Sok, OSB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4 by Benedict Press, Waegwan, Korea.

안티레티코스

악한 생각과의 싸움

2014년 9월 4일 교회 인가

2014년 9월 15일 초판 1쇄

2015년 11월 30일 초판 3쇄

지은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옮긴이 허성석

펴낸이 박현동

펴낸곳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분도출판사

등록 1962년 5월 7일 라15호

주소 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61

전화 02-2266-3605(출판사업부) · 054-970-2400(인쇄사업부)

팩스 02-2271-3605(출판사업부) · 054-971-0179(인쇄사업부)

홈페이지 www.bundobook.co.kr

ISBN 978-89-419-1416-7 03230

값 12,000원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dizioni Qiqajon s.r.l.사와 독점 계약한 분도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지음
허성석 옮김

안티레티코스

악한 생각과의 싸움

본도출판사

서문

- 작품의 구조와 의도 _ 7
- 악한 생각 대처법 _ 8
- 성경에서 출발하는 기도와 싸움 _ 10
- 저술 동기 _ 11
- 『안티레티코스』와 『프락티코스』의 관계 _ 14

머리말에 대한 영적 해설

- 사람들, 천사들과 악령들, 그리고 하느님 인식을 위한 싸움 _ 17
- 유혹을 거스른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길 _ 20
- 방법의 적용 _ 23
- 성경 말씀의 역할 _ 25
- 신앙과 계명준수 _ 27
- 그리스도교 금욕수행에서 기도와 신앙 _ 29
- 순수한 기도와 성삼위의 빛에 대한 관상 _ 33
- 『안티레티코스』의 원전: 다윗과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 _ 36
- 생각과의 싸움으로서 수도승적 금욕수행 _ 39
- 결론: 영성생활에서 반론의 의미 _ 40

안티레티코스

여덟 가지 생각에 관한 에바그리우스의 담화

머리말 _ 49

담화 1 탐식 _ 55

담화 2 음욕 _ 77

담화 3 탐욕 _ 99

담화 4 슬픔 _ 119

담화 5 분노 _ 143

담화 6 아케디아 _ 163

담화 7 헛된 영광 _ 183

담화 8 교만 _ 199

웁기고 나서 _ 221

주 _ 225

약어표 _ 241

인명 색인 _ 245

성경 색인 _ 246

【일러두기】

1. 성경 인용문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성경』(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05)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2. 내용과 표현에서 우리말 『성경』과 다른 부분은 에바그리우스가 사용한 칠십인역(LXX) 그리스어 성경에 따라 번역한 것이다.
3. 교부 시대 인명·지명은 『교부학 인명·지명 용례집』(하성수 엮음, 분도출판사 2008)을 따랐다. 다만,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로 표기했다.

서문

『안티레티코스』*Antirrhētikos*¹는 수도승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345~399)²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³ 수도승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작품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리스어 원본의 단편조차 보존되어 있지 않다.⁴ 이 작품은 역사학자 소크라테스⁵와 젠나디오⁶ 같은 전문가들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동방 그리스 세계에는 겨우 5세기 중엽에, 서방 라틴 세계에는 5세기 말에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어 원본의 소실이 그리스어권 수도승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대 전통과의 불운한 단절의 결과다. 사실 시리아어 번역본과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은 수도승들 편에서 『안티레티코스』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소그디아나어로 된 단편들은 이 작품이 멀리 투루판 오아시스에까지 전해졌다는 증거가 된다.⁷

작품의 구조와 의도

작품의 구조는 단순하다. 긴 머리말 뒤에 여덟 가지 생각 하나하나에 할애된 여덟 개의 담화가 이어진다. 이 생각들은 에바그리우

스의 다른 작품⁸에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각 담화는 유혹하는 악령들의 제안에 신구약 성경에서 뽑은 짧은 인용들로 구성된 43개에서 76개의 '반박'⁹을 담고 있다. 결정적인 시리아어 주^註는 497개의 제안과 반박의 총합을 표시한다. 두 텍스트가 잘못 합산되어 실제로는 498개다.

작품의 의도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현대 독자들은 보통 고대 수도승생활에서의 성경 이해보다 에바그리우스의 심리학에 더 흥미를 느끼는데, 무엇보다 악령의 제안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실 각 유혹의 현시에 대한 다소 긴 이 묘사들은 심리학적 행위 구조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스키티스^{Sketis}¹⁰ 수도승생활과 그곳 특유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관해서도 매우 독특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다른 방식으로 사태를 파악했다. 맞서 싸우기 적합한 무기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그는 수도승이 손에 잡을 병기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다." 그러나 싸울 도구를 선택하려면 먼저 공격자를 식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성경 말씀에 앞서, 유혹하는 생각의 다양한 현시를 묘사할 필요가 있었다.

악한 생각 대처법

그 자체로 하나의 소품을 이루는 『안티레티코스』 머리말에서 에바그리우스는 한 방법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 언급한다. 여기서 그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모아 놓은 성경 본문들을 반복함으로써 유혹자의 제안을 단번에 물리치는 것이다.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이 이 방법의 창안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늘 그렇듯이 자기는 단지 교부들의 지혜를 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적합한 성경 본문들을 택하여 체계적으로 모으는 작업만 유일하게 자신의 몫으로 돌린다. 여러 교부에 대한 분명한 언급¹²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확산된 하나의 수행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수행은 소위 말하는 '단음절 기도'¹³와 동일한 원칙에 토대를 둔다.

스케티스 수도승생활에 특징적인, 이 악한 생각 대처법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 주는 에바그리우스의 글들에는 일종의 조소가 담긴 구절도 발견된다.

악한 생각들에 반박하긴 했지만 스케티스의 교부들은 매우 단순했고 하느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은 의지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원수는 말 한마디로 찢절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온종일 헛된 잡담으로 보내면서 원수와 대적하는 순간부터 하느님과의 대화에 낮설어진다.¹⁴

이 구절은 에바그리우스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이 방법의 한계들을 예리한 직관으로 암시하고 있다. 에바그리우스는 하나의 수단, 예컨대 값진 눈물이라는 수단이 그 목표를 잃게 될 때 오히려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¹⁵ 그래서 수도승은 반박의 명확한 목적, 즉 ‘하느님과 대화’¹⁶를 위해 자유로워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티레티코스』 머리말은 에바그리우스가 다른 곳에서도 권고한¹⁷ 반론^{antirrhesis}이 어떤 마음으로 행해지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성경에서 출발하는 기도와 싸움

에바그리우스 영성, 더 좁은 의미로 그의 ‘신비주의’의 핵심에는 ‘영과 진리’로 바치는 ‘참된 기도’ 혹은 ‘영적 기도’가 있다.¹⁸ 기도는 어떤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대화¹⁹이며, 삼위일체 하느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은 정신이 순수할 때, 즉 욕정이나 온갖 다른 형태의 생각과 표상들^{noémata}에서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²⁰

정신을 흐리게 하는 불순한 생각을 몰아내는 탁월한 수단은 성경 독서다. 에바그리우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강조한다.²¹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수도승들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을 이 성경 독서에 할애한다.

그러나 성경 독서는 묵상^{meléte}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다. 묵상은 기억에 저장해 둔 특정한 성경 말씀에 대한 관상적 반복이다.²² 분산된 정신은 이런 식으로 오직 ‘하느님 생각’에만 연결되면서, 에바그리우스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예비한다. 기도는 하나의

‘상태’*katástasis*로서 정신은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을 보고 이 기도의 ‘거울’ 속에서 하느님을 본다.²³

유혹의 생각들이 완강히 버틴다면, 수도승은 ‘짧고 강력한 기도’에 호소한다.²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듯이,²⁵ 수도승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기억해 둔 성경 구절들의 보고寶庫에서 그 기도를 뽑아낸다.²⁶ ‘반박’의 방법과 항구한 마음의 기도는 이 뿌리에서 유래한다.

각별히 수도승다운 이 성경 이용법은 성경의 ‘영적’ 혹은 ‘신비적’²⁷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한다. 말하자면 흔히 그렇듯이, ‘역사적’ 이해가 영감받은 말씀을 그 문구의 반복될 수 없는 일시적 상황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늘 실재하는 충만과 완성에 개방하는 것을 전제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 ‘신비적 의미’는 개인적 차원으로 건너가며 내면화된다. 기도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 들어간다.

저술 동기

에바그리우스 작품들이 대개 그렇듯이, 『안티레티코스』도 요청에 따라 저술된 작품이다.²⁸ 다행히 우리는 한 아랍어 번역본에서 루키우스 압바라는 분이 에바그리우스에게 보낸 서간을 접할 수 있다. 거기에 에바그리우스 서간들에서 발견되는 답신이 달려 나온다. 이 서신 교환이 『안티레티코스』를 저술하게 했던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알려 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인용해 보자.

오, 신부님, 당신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어머니 무릎에서처럼 사막에 거주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오셨습니다. 영혼에 유익한 금욕적 수행의 노고로 무장된 공경하올 에바그리우스 신부님, 그렇듯 당신은 악한 영들에 맞선 경험 있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악령들의 모습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당신께 부르시어 그들 역시 불순한 영들과 오염된 생각들에 맞서는 싸움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 부성에 간청하옵건대 제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성덕에 간절히 청하옵건대 고유의 단계로 수도승 생활에 개입하는 악령들의 온갖 책략을 설명해 주는 확실한 작품을 제게 하나 써서 보내 주십시오. 우리도 그들의 기만적인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영적 문제에 대해 당신께 청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께 이 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길 기원하며!²⁹

여기 묘사된 상황은 에바그리우스의 충실한 제자이자 전기 작가인 팔라디우스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바와 완전히 일치한다.³⁰ 에바그리우스는 대략 16년 동안의 사막 생활 중에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³¹ 도처에서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고, 이 서간이 보여 주듯이 그에게 가르침을 글로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명성은 유감스럽게도 몇몇 형제들의 시기심을 샀다. 이 점에서 그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대사 마카리우스³²와 요한 콜로보스³³ 역시 에우카르피우스³⁴라는 수도승의 표적이었다.

앞의 서간은 에바그리우스가 벌써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살았고, 그 주위로 제자들의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팔라디우스³⁵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 따라서 『안티레티코스』는 390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루키우스가 요청한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러하다: 루키우스는 에바그리우스에게 정확히 두 가지를 정리해서 서술해 달라고 청한다. 하나는 ‘악령들의 온갖 책략에 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기만적인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이다. 이것이 『안티레티코스』의 내용을 이룬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요청에 다음 서간으로 응답한다.

저는 당신 성덕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저에 대한 당신의 큰 사랑을 보여 주었고, 제가 당신의 현명함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당신께 보내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저의 노고들 중 어떤 것을 당신께 보내 달라고 제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즉시 순종하여 당신께 『안티레티코스』란 작품을 보냈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것을 읽고 교정하고, 제가 사악한 생각들 중 이것저것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거나 그 생각에 반대되는 적절한 반박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께 고백하건대, 저는 악령들에게 자주 심한 공격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 합당한 방법으로 사악한 생각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서 떠나간 후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예측한 바처럼 당신에 관해서 들은 것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³⁶

이 답신 역시 유익하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미 저술가로서, 또 명사로서 활약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작품들과, 또 당연히 그것들 안에 담긴 가르침은 과연 수도승 에우카르피우스의 시기심을 살 만했다.³⁷ 에바그리우스가 루키우스에게 보낸 작품은 『동정녀에게 준 권고』³⁸의 경우처럼 이 서간에 전부 다 포함된 것 같지 않다. 이처럼 방대한 작품을 편집하는 데는 늘 일정 시간이 요구되었다. 오히려 에바그리우스는 자기가 제목을 붙인 『안티레티코스』를 루키우스의 요청에 응하기에 더 적합한 작품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루키우스는 사막에 있는 에바그리우스를 방문했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에바그리우스 ‘형제회’에 가담하기까지 했다.³⁹

『안티레티코스』와 『프락티코스』의 관계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안티레티코스』는 필사본 전승 전체를 설명해 주는 비평본도 하나 없다. 이 작품은 머리말과 여덟 개의 담

화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말 8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승생활에 관한 이 책에’ 원래 악령들의 여덟 가지 ‘생각’ 목록뿐 아니라 상세히 서술된 ‘수도승생활의 모든 싸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선행되었음을 전제하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머리말에 이어 곧바로 첫째 담화가 이어진다. 압바 루키우스도 ‘악령들의 온갖 책략’ 정확히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쨌든 이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덟 가지 생각과 그것들의 작용 과정에 관해 더 전반적인 소개를 기대할 만한데, 『프락티코스』를 그런 예로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수도승’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프락티코스』가 원래 『안티레티코스』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가정은 배제하자. 사실 10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프락티코스』는 『그노스티코스』와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와 함께 삼부작을 구성하기 위해 예정된 것이었다.⁴⁰ 그러나 구조를 보면 『프락티코스』가 여러 공동체에서 두 번째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일부 공동체는 앞서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프락티코스』 6-33장에는 사실상 여덟 가지 발생학적 생각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나온다. 그 생각들은 6장에서 열거되고, 7-14장에서 분석되며, 15-33장에서 적합한 치료제들이 제시된다. 아마 옛날에는 6-14장이 『안티레티코스』의 여덟 가지 담화에 일종의 도

입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가정하건대, 필사자들이 『프락티코스』의 이 장들을 다시 비교해 보면서 후에 그것들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한 저자의 작품을 아무런 언급 없이 오늘날의 통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루었다.⁴¹ 만일 이런 관여를 정말 그리스 필사자들이나 시리아 필사자들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면, 그들이 에바그리우스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방대한 필사본 전집들로 편집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만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머리말에 대한 영적 해설

이 시점에서 『안티레티코스』 본문을 그 안에 배치하는 본질적 그림이 청사진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에바그리우스 본문 자체를 소개하기 전에 저자의 본래 의도에 걸맞게 수도승적으로 다시 읽는 방식으로 해설하면서 머리말의 내용에 더 깊이 다가가도록 독자를 초대하고 싶다. 사실 에바그리우스의 작품을 읽는 사람은 오로지 '거룩한 교부들의 발자취를 따를'⁴²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영성생활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결실을 맺을 때 자신의 독서가 완성되리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에바그리우스의 저술 목적이다. 이제 작품을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면서 작품 전체의 교의적·영적 토대를 살펴보자.

사람들, 천사들과 악령들, 그리고 하느님 인식을 위한 싸움

하늘 아래(코헬 1,13) 있는 이성적 본성의 한 부분은 싸움을 하고, 한 부분은 싸우고 있는 자를 도우러 오고, 한 부분은 싸우는 자를 거슬러 용기 있게 전투를 일으키고 복돋우며 그를 대적해 싸운다. 싸우

는 자는 사람이고, 그를 돕는 자는 하느님의 천사이며, 그의 적대자는 악령이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하느님 인식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면(시편 17,2), 그것은 악령들의 강력한 힘이나 조력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자들의 느슨함 때문이다.⁴³

현대의 감성에는 유일한 '이성적 본성'*physis loghiké* 안에 천사, 사람, 악령을 한데 모으는 것이 낫설다. 반면 악령은 타락한 천사이므로 천사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사실 에바그리우스에게 천사, 인간, 악령은 '이성적 본성'이 발견되는 좋거나 나쁜 '상태'*katástasis*의 표현일 뿐이다.⁴⁴ 이 '차이'*diáiresis*는 본성상 이차적이고⁴⁵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하여 극복되도록 예정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상적 존재 안에서는 바꿀 수 없다.⁴⁶

이 세 가지 주요 계층 중 인간은 '실제적 육체'⁴⁷ 덕분에 자기 '상태'를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천사'로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악령'으로도 바뀔 수 있다.⁴⁸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제한에 따라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고도의 순수함에 힘입어 '천사와 같이'⁴⁹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거의 천사의 상태'⁵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욕정, 특히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은 '뱀과 같이' 되고 '악령'으로 바뀐다.⁵¹

사실 인간 육체 조직은 덕을 실천하라고 그에게 부여된 '도구'

다.⁵²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proairesis*, 즉 '자신에 대한 권한'*autexousion*은 악을 선택하고 악습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⁵³

따라서 인간의 지상 실존은 싸움과 결정으로 정해진다.⁵⁴ 이 과정에서 천사들⁵⁵이, 특별히 개인의 수호천사⁵⁶가 그를 도우러 온다. 반대로 그의 '적대자들'*antikeímenoi*인 악령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짓을 자행한다.⁵⁷ 이 싸움은 '생각'의 차원에서, 주로 인간 내면에서 전개된다. 천사들은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반면, 악령들은 악한 생각으로 그에게 교묘히 접근한다.⁵⁸ 인간은 창조 때 인간 본성의 '땅'에 심기고, 따라서 제거될 수 없는 덕의 '씨앗'에서 분출하는 그 생각들 덕분에 이것과 저것 가운데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⁵⁹ 우리가 앞으로 '양심의 움직임'*moti di coscienza*이라 부르려 하는 이것은 심지어 지옥에 있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조차 있다.⁶⁰

그렇듯 선을 행하고 악에 저항하기 위해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이 싸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자기 탓일 뿐이다.⁶¹ 에바그리우스가 『안티레티코스』 여덟 째 담화에서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정은 가장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인 교만이다. 교만은 신성모독의 한 형태로, 간음의 경우에조차 인간 고유의 책임을 거부하며,⁶² 천사들의 도움⁶³이나 하느님 섭리⁶⁴도 거부한다. 논리적으로 이런 견해는 선과 악의 보상에 있어 하느님의 정의를 부정하기에 이른다.⁶⁵

이 첫 단락의 결론은 에바그리우스 가르침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하느님 인식, 무엇보다도 ‘피조물에 대한 관상’*physiké*을 통해 얻게 되는 하느님에 대한 간접적 인식이다. 이 피조물에 대한 관상에서 하느님은 당신 작품들을 통하여 드러나신다.⁶⁶ 그다음은 세 신적 위격과의 직접적 만남을 통한 ‘하느님 자체에 대한 인식’*theologiké*이다.⁶⁷ 하느님에 대한 이 직접적 인식은 여기 이 지상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의 기도로 실현되기 때문에 에바그리우스는 우리와 악령들 간의 모든 싸움은 전적으로 ‘참된 기도’를 중심으로 행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⁶⁸

역사 이전, 시간이 없던 ‘시초’에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반복된다. 사실상 창조된 영들은 그들 소홀함*améleia*의 결과 하느님과의 초기 일치에서 떨어져 나왔고,⁶⁹ 그와 더불어 원래 그들에게 속해 있던 하느님 인식도 박탈당했다.⁷⁰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인간의 고유 운명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유혹을 거스른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게 하셨다(루카 10,19). 당신의 모든 가르침에 더하여 사탄의 유혹을 당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했던 바를 우리에게 주셨다(참조: 마태

4,1-11; 루카 4,1-13). 전투할 때처럼 악령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에페 6.16),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들에게 대응한다. 이는 우리 안에 불순한 생각이 남아 있지 않게 하고, 행위로 실현되는 죄로써 영혼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며, 영혼을 더럽혀 죄의 죽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짓는 자는 죽을 것이다(에제 18.4). 사실, 악에 한마디 말로 응답할 수 있는 확고한 생각이 정신 안에 없을 때, 정신은 쉽고 빠르게 죄를 범하게 된다.⁷¹

그리스도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곧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에바그리우스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의 그리스도론은 부분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특성을 띠고 있음이 확실하다. 『안티레티코스』 머리말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암시한다. 악령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천사의 도움에만 맡겨져 있지 않다. 이 하느님 섭리의 표시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선행된다.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게'⁷² 하셨다. 마찬가지로 싸우는 자에게 욕정에서의 궁극적 자유*apatheia*⁷³를 허락하시는 분도 그분이다. 오직 신성모독적 교만만이 감히 이것을 부정한다.⁷⁴

에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결합된다. 여러 구절에서 '생각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프락티코스』에는 이미

첫 장부터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교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프락티케와 퀴시케, 그리고 테올로기케로 구성된다.⁷⁵

이 세 가지 중 프락티케(*praktiké*)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계명준수⁷⁶와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특히 악령, 그들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유혹의 생각들, 최종적으로는 욕정(*páthe*)의 문제다. 욕정을 일으키는 것은 악령인데, 우리가 악령에게 굴복할 때 욕정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⁷⁷

결국 에바그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언급한다. 사실 에바그리우스에게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모방’이기도 하다.⁷⁸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단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받을 모범을 남겨 주기 위해서 탐식, 탐욕, 헛된 영광이라는 세 가지 주요 생각에 대적했다.⁷⁹

에바그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와 ‘논쟁’하지 않고 악마의 말에 하느님 말씀 하나로 단순하게 대적하고 있음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위의 죄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에바그리우스는 유혹의 생각들을 이렇게 구분한다: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지만⁸⁰ 죄가 되지는 않는⁸¹ 생각으로 짓는 죄⁸²와 우리 동의만으로 실현되고⁸³ ‘행위로 짓는 참되고 고유한 죄’⁸⁴다.

오직 행위로 짓는 죄만이 영혼의 영적 죽음을 초래한다.⁸⁵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에 따르는 부활’만이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⁸⁶

이 행위의 죄로 들어가는 문을 닫으려면 ‘반론’*antirrhesis*이라는 수단에 의지해야 한다.⁸⁷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향하기 위하여 유혹자의 논리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방해하면서 ‘적의 불화살’을 끄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⁸⁸ 다만,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릴 때 상황에 따라서는 행위의 죄로 건너가는 경우도 잦다.

방법의 적용

코헬렛이 “악한 행동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는다”(코헬 8,11)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현명하게 보여 준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말한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잠언 26,4-5). 사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그의 어리석음에 맞추어 우둔한 자에게 대답하고 악령들과 비슷해진다. 그의 분노는 독사의 분노다(신명 32,33). 반대로 잘 참는 사람은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히려”(시편 37,8)라고 쓰여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했고, 그 어리석음의 악

령을 반박했으며, 그 악령에게 이렇게 지적했다. “보라, 너는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음모를 꾸몄다.”⁸⁹

여기서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예증된 그 방법의 구체적 적용을 다루고 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악령의 장난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서문에서 인용한 본문이 말하듯이, 악령이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점을 분노의 유혹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여 준다. 성 잘 내는 비이성적 능력 *thymikón*의 본래 역할은 ‘악령들과 싸우는 것’⁹⁰이다. 진리의 온갖 반대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영혼의 본래 목적에서 영혼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들을 거슬러 고의로 이 분노의 힘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긴다.⁹¹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금지되는데, 하느님의 모상인 누군가를 거스른 정당한 분노란 결단코 없기 때문이다.⁹²

악령의 ‘어리석음’에 이런 식으로 동의 *pròs tèn ekeinou aphrosýnen* 하거나 형제를 거슬러 분노의 유혹에 떨어지는 자는 그 자신이 악령이 된다.⁹³ 그런 사람의 본질은 분노다.⁹⁴ 따라서 에바그리우스가 지지하지 않고 반복하듯이 정신을 ‘눈멀게 하고’⁹⁵ 그렇게 관상적 인식을 빼앗은 분노와 원한은 영성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하느님께

축성된 나지르인, 혹은 수도승은 이 충격적인 ‘용들의 포도주’를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⁹⁶

반대로 유혹자가 드러낸 어리석음에 상응한 방식으로 응수하고 *katà tèn aphrosýnen autoû*, 적절한 성경 말씀을 통해 유혹자가 일으킨 분노와 증오의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사람은 이 반박 덕분에 악령을 다시 어리석게 만들어 생각과 행위의 죄를 피한다.

성 잘 내는 이 사악한 충동이 ‘순수한’ 기도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면⁹⁷ 정확하게 적용된 반론 방법은 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방법은 성 잘 내는 비이성적 능력 *thymikón*이 자기 본성에 따라 악령들을 대적해 싸우도록 돕는다. 그리고 충만한 겸손의 덕을 통하여⁹⁸ 영혼을 그 본래의 ‘건강’ 상태인 내적 균형 상태로 유지시킨다.⁹⁹

성경 말씀의 역할

우리는 싸움의 순간에 기만하는 악령인 우리 적에게 대응할 적합한 말을 신속히 찾지 못한다. 그 말들은 성경 안에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개별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들을 뽑았는데, 이는 우리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전사이자 투사로서 전투에서 그것들로 무장하여 용맹스럽게 필리스티아인들에 맞서 나아가기 위해서다(탈출 13,17 참조).¹⁰⁰

에바그리우스에게 영성생활은 본질적으로 구원 역사의 개인적 내면화다. 이를 위해 에바그리우스는 교회가 이미 새 계약 안에서 그 완성과 관련하여 예형론적으로 읽었던 구약의 구원 역사를 수도승의 내적 여정에 예형론적으로 적용한다. 이집트는 악¹⁰¹ 혹은 이 세상¹⁰²의 상징이다. 파라오는 사탄¹⁰³의 전형^{τύπος}, 이집트 탈출은 악과 무지에서 벗어남¹⁰⁴을 상징한다. 사막 시기는 수행¹⁰⁵의 상징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감은 덕과 인식으로 들어감¹⁰⁶을 상징한다.

그러나 먼저 약속된 땅이 정복되어야 한다. 이방인 ‘필리스티아인들’, 혹은 악령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⁷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약해질 때 그것을 재점령하려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⁸ 그러나 수도승은 이 끊임 없는 전투에서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저 용맹한 투사인 참된 ‘여호수아’,¹⁰⁹ 그의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¹¹⁰를 따른다.

에바그리우스가 분명히 강조하듯이, 그는 『안티레티코스』로 순수하게 수행적 목적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의 병기고를 준비했다. 수도승은 원수가 공격할 때 매번 거기서 힘들이지 않고 적합한 무기를 발견한다. 에바그리우스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로써 그들의 가난한 사막의 독방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비치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수도승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수도승들은 적어도, 구약성경 가운데는 그들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었을 만큼 많이 사용된 책인 시편집과, 신약성경 정도는 전체

든 일부든 지니고 있어야 했다.

처음에 지적한 대로 현대의 독자는 무엇보다 에바그리우스가 각 성경 인용에 앞서 묘사하는 다양한 '생각'의 특성들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이 특성들이 본문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전 단락 끝에 단순히 암시하고 있다.

신앙과 계명준수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즉, 우리가 악령들에 저항하고 그들에게 대응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거슬러 더욱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그것을 배웁니다. 욥은 “내가 말하려 하면 그들은 나를 치네”(욥 4,4)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평화로이(그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거슬러 싸웠다네”(시편 120,7)라고 말한 다윗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구속주의 권능으로 굳건히 그들에게 논박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요한 14,1)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요한 15,10) 요르단을 건너 팔마의 도시(신명 34,3)에 이를 것입니다.¹¹¹

우리가 악령들의 저항에 더 단호하게 대항할수록 그들은 더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은 경험이 증명하는 바다.¹¹² 게다가 에바그리우스는 앞서 인용한 시편 120편 7절을 상세히 주해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악령들은 누군가 생각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대응할 때 더욱 악하게 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유혹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단연코 단식의 정신으로 생각들을 거부해야 한다.¹¹³ 그러나 적들은 전투 중에 우리가 단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를 거슬러 제시하는 생각들을 마주하여 우리가 생각들에 대해 충분히 자제하지 못하는 바와 같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한, 즉 그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한, 그들은 영혼을 소외시킨다. 그래서 잠언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말씀을 한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곳에 머물지 마라. 네 눈을 그녀 위에 두지 마라”(잠언 9,18).¹¹⁴ 혹은 적대적인 힘이나 사악함에도 두지 마라. 알다시피 지혜는 그런 것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 준다.¹¹⁵

따라서 반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들을 준수해야 한다.¹¹⁶ 영성생활은 사실 초기 신앙 행위의 점진적 전개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인식에서 완성된다.¹¹⁷

이 문맥에서 에바그리우스는 탈출기의 예형론으로 되돌아가¹¹⁸ ‘새 이스라엘’이 참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실현하는 요르단 횡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요르단은 수행^{praktiké}이라는 사막¹¹⁹과 관상^{theoretiké}, 즉 인식이라는 약속된 땅¹²⁰ 사이의 경계다. 이 강은 욕정의 부재不在나 거기서 분출하는 사랑에 대한 상징

과도 같다. 즉, 수행의 결정적 도착점을 나타낸다.¹²¹ 그렇더라도 에바그리우스가 여기서 ‘팜마의 도시’(신명 34,3), 곧 예리코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오리제네스에게 예리코는 지나갈 이 유한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시다.¹²² 반면 에바그리우스는 예리코에 관해서보다 오히려 ‘팜마의 도시’라는 표현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며 예리코를 긍정적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한다.

이 점에서 에바그리우스가 우리가 불순한 생각에서 갑자기 해방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한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요르단을 횡단하여 팜마의 도시에 가까이 다가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막에 머물며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²³ 아마 그렇게 ‘팜마의 도시’로 ‘의인들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리라. 성경에도 ‘의인은 팜마처럼 돌아난다’(시편 92,13)고 쓰여 있다.¹²⁴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정의는 조절하는 덕¹²⁵이며, 그것 없이 인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스도교 금욕수행에서 기도와 신앙

이 전투에서 우리는 영적 갑옷이 필요하다(에페 6,11,13). 즉, 올바른 신앙, 완전한 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 영웅들의 용맹한 몸짓, 겸손, 거의 혹은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않는 고요, 그리고 끊임없

는 기도(1테살 5,17)다. 그러나 만일 빵과 물로 배불리고 쉽게 성을 내고 기도를 경멸하고 소홀히 하며, 이단자들과 친하면서¹²⁶ 영적 싸움을 견디고 정의의 월계관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다. 자! 바오로 사도는 말한다. “견뎌야 할 싸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하고(1코린 9,25) 모든 이를 항상 온유하게 대한다(티토 3,2). 그는 어디서나 성을 내지도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손을 들어 기도한다(1티모 2,8).”¹²⁷

‘올바른 신앙’, 곧 정통 신앙*ortodossia*은 영성생활에 속한다. 그것은 또한 영적 ‘가르침’인데,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행과도 같다. 에바그리우스는 시편 주해의 두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수행은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하는 영적 가르침이다.¹²⁸

주님의 목소리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끈다”(에페 6,16). 이 [목소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올바른 행위*politeia*로 부르는 영적 가르침이다.¹²⁹

‘현세적인 것들을 죽게’(골로 3,5) 하는 것은¹³⁰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¹³¹이다. 이 가르침은 ‘의로우신’¹³² 하느님으로부터 영적 사부들을 통하여,¹³³ 아니면 직접 천사들을 통하

여¹³⁴ 수도승에게 전해진다. 게다가 본문에 언급된 금욕적 작품들 이외에 이 가르침은 악한 생각들과 그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네 아이들을 붙잡아 바위에 매어치는 이는 복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악한 생각들을 근절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바빌로니아의 아이들을 바위에 매어친다.¹³⁵

저 '바위'라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 자신이다.¹³⁶ 혹은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바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다.¹³⁷

그러나 이것은 외적 금욕수행으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면 금욕수행은 '불 꺼진 재'¹³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금욕수행은 오직 육체만 굴복시키는 반면,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자 '인식의 어머니'¹³⁹인 온유는 '정신을 관상적이게'¹⁴⁰ 하고, 하느님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참된 빛을 보는'¹⁴¹ 자가 되게 한다. 따라서 에바그리우스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인 겸손까지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육체의 욕정들을 진정시키는 외적 금욕수행(특히 사막에서 유혹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치신 단식)은 내적 수행을 동반한다. 영혼의 욕정들은 내적 수행 없이 치유될 수 없다.¹⁴²

에바그리우스는 '가르침'의 일부로서 '끊임없는 기도'도 분명히 언급한다. 그는 그것을 바오로 사도의 권고(1테살 5,17)로, 아니 주님

자신의 권고(루카 18,1)로 되돌리고 있다.¹⁴³ 끊임없는 기도는 초기 수도승생활보다 더 고대의 수행에 속하는¹⁴⁴ 동시에 반론의 긍정적 측면이다.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언급한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주',¹⁴⁵ '중단 없이',¹⁴⁶ '부단히'¹⁴⁷ 암송되어서는 안 되고, '간결하게',¹⁴⁸ '짧게'¹⁴⁹ 그리고 동시에 '열렬하게',¹⁵⁰ '심도 있게'¹⁵¹ 암송되어야 한다. '이집트 수도승들'의 이 수행에 대해서 전해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빠르게 창을 던지는 것'*raptim quodam modo iaculatas*¹⁵²과 같은 짧은 기도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에바그리우스와 같은 환경에서 양성을 받았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 전통을 서방 수도승생활에 전달했다.¹⁵³ 그러나 서방에서는 동방에서와 같은 의미를 띠지는 않았다.

모든 그리스도교 금욕수행의 토대는 '올바른 신앙'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¹⁵⁴ 하느님의 구원 행위*oikonomía*에의 접근, 그리고 '홍송하올 거룩한 삼위일체'¹⁵⁵에 대한 신앙, 곧 신학*theologia*¹⁵⁶이다. 이 점에서 에바그리우스가 '이단자들과의 친숙함'을 경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자기 작품 여러 곳에서 — 부분적으로 자서전적 형태로¹⁵⁷ — 이단자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심지어 충돌에 대해서까지 말하기에 이른다. 이단자들의 일부가 이미 동방정교회 공동체들 내부에 침투해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⁵⁸ 에바그리우스는 그들과의 논박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위험을 분명히 강조했다.¹⁵⁹ 그 주된 이유는 논박이 분노의 악습을 불

러일으켜 '순수한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에바그리우스는 비록 온갖 이단의 배후에 있는 악령들이 종종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¹⁶⁰ 의도적으로 다툼을 피하였다.¹⁶¹

순수한 기도와 성삼위의 빛에 대한 관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때, 영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죄에 맞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히브 12.4)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 인식에 맞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과 온갖 요새를 부수면서(2코린 5.10), 그리고 '인간-수도승' 'uomo-monaco'으로 뿐 아니라 '정신-수도승' 'intelletto-monaco'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서 말이다. 인간-수도승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죄에서 멀어지는 자다. 반면 정신-수도승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킨 죄에서 멀어진 자이며 기도 중에 성삼위의 빛을 보는 자다.¹⁶²

에바그리우스는 둘째 단락에서 행한 생각의 죄와 행위의 죄의 구분을 다시 취한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보다 생각의 죄다. 그의 목표는 항상 '정신의 한 상태'인 '순수한 기도'다. 이것은 '온갖 지상적 생각을 몰아낼'¹⁶³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생각을 몰아낸다.¹⁶⁴ 실제로 '기도는 생각들의 포기'¹⁶⁵다. 반론의 역할은, 물질적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생각들이¹⁶⁶ 먼저 유혹하는 ‘생각들’이 되고, 환경이 그것들에 기회를 줄 때 결국 참되고 고유한 행위의 죄가¹⁶⁷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여기서 에바그리우스가 행한 ‘인간-수도승’과 ‘정신-수도승’ 간의 특별한 구분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견된다. 그 구분은 영성생활의 주요 두 단계, 즉 프락티케와 테오레티케에 상응한다. 그것은 정확하게 정신은 ‘세속인’*kosmikós*¹⁶⁸으로 혹은 완전함에 이른 ‘수도승으로’*hos monachós*¹⁶⁹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인간-수행자*ánthropos praktikós*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¹⁷⁰

정신-수행자*noûs praktikós*는 이 세상의 개념적 표상들을 계속해서 욕정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¹⁷¹

여기서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정신-수행자’는 ‘기도 중에 성삼위의 빛을 보는’ ‘관상가’*theoretikós*다. 에바그리우스는 그의 신비신학에서 자주 다룬¹⁷² 이 중심 주제를 『안티레티코스』에서도 암시한다.¹⁷³ 이 ‘복된 빛’의 환시는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은총으로 당신 피조물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순간이다.

악한 생각들 *loghismoi*은 피조물에 대한 관상에 전념하는 영혼의 왼쪽 눈을 멀게 한다. 우리 정신을 조각하여 형태를 만드는 *heghemonikón* 개념적 표상들 *noémata*은 기도 중에 성삼위의 복된 빛을 보는 우리 오른쪽 눈을 어둡게 한다. 그 눈을 통해 아가의 신부는 신랑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아가 4.9 참조).¹⁷⁴

정신은 영혼의 이성적인 눈으로 이 ‘복된 빛’을 본다.¹⁷⁵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 안에서’¹⁷⁶ 본다. 자기 자신 밖에서 지각할 수 있는 감각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다.¹⁷⁷ 에바그리우스에게 ‘빛’과 ‘보다’는 흔히 ‘인식’과 ‘인식하다’와 동의어다.¹⁷⁸ 그럼에도 더 깊고 차별성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에바그리우스가 아가에서 뽑은 인용이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가는 에바그리우스가 매우 드물게 인용하는 책이다. 그러나 그 인용에 어떤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 변화는 에바그리우스에 의해 대화의 형태로, 높은 신비적 영감의 형태로 행해졌다.¹⁷⁹ 여기서도 ‘빛’의 주제가 나타난다. 즉, 신랑의 모습 *eidós*은 빛의 형상과도 같다.¹⁸⁰

오직 ‘기도 중에’만 정신에 빛나는 ‘이 빛’에 대해 다른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이 ‘하느님의 처소를 인식할 수 있게’¹⁸¹ 해 준다는 것이다. 탈출기 24장 10절의 빛나는 신적 현현(顯現)의 토대 위에서 영혼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 은총의 현존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영혼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처소'¹⁸²가 된다. 따라서 이승에서 가장 높은 신비체험이 인간에게 가능하다.

『안티레티코스』의 원전: 다윗과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

이제 내 입을 열어(시편 119,131; 참조: 에페 6,19)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시험받은 내 영혼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1코린 5,4) 내가 수도승생활에 관한 이 책의 서두에서 연속적으로 열거했던 탐식의 악령,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일곱 가지 악령에 맞서 싸울 때다.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복된 교부들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수도승생활의 온갖 싸움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이다.¹⁸³

에바그리우스는 반론의 방법을 위해 다윗, 특히 그의 시편들과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에 의지한다. 서두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모범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¹⁸⁴ 에바그리우스가 여기서 교부들의 옛 가르침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독수도승들에 대한 첫 작품'¹⁸⁵ 『안토니우스의 생애』에서 악령의 유혹들에 맞선 '반박'으로서 시편을 적절히 사용하는 많은 예들을 인용할 수 있다.¹⁸⁶ 『안티레티코스』의 여덟 장들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자주 안토니우스의 예를 참고한다.¹⁸⁷ 뿐만 아니라

사부 대⁸ 마카리우스¹⁸⁸와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¹⁸⁹도 언급한다. 게다가 리코폴리스의 요한¹⁹⁰에 대한 언급은 더 잦다. 에바그리우스는 특별히 영성생활과 관련된 몇몇 어려운 질문을 그에게 하려고 노력했다.¹⁹¹ 그래도 이 방법의 진정한 ‘창안자’는 다윗이다. 한 편지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복된 다윗이 보여 주듯이 [정신은] 악령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재생한 [후] 그 말들을 반박하면서 자기 적대자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악령들이 “저자가 언제 죽어 그 이름이 사라질까?”(시편 41,6)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나는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시편 118,17)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악령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 머물라”(시편 11,1)고 말할 때, 다윗은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시편 62,3)고 말합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고 승리를 사랑하십시오. 다윗을 본받아 당신 자신에게 주의하십시오!¹⁹²

이 아름다운 본문은 초기 수도승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특히 시편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았는지, 그 방식을 생생히 묘사한다. 게다가 에바그리우스는 사막에서 이미, 예수의 유혹 이야기부터 악령들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 계략은 다른 데서도 언급된다.¹⁹³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안티레티코스』를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론의 방법은 단지 [악령들에게] 성경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대답을 주는 것¹⁹⁴으로만, 즉 유혹의 생각들에 직접 반대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종 영혼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비참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도 말해야 한다.

아케디아의 악령에 떨어질 때 우리는 눈물과 더불어 우리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로하는 부분이요, 다른 하나는 위로받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희망을 심고 거룩한 다윗과 함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이라고 노래한다.¹⁹⁵

그러나 ‘하느님과 그분의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 적대자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봉사자들과)의 대화’, 즉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령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제안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려 애쓴다. 그러한 짧은 기도에 대해 『안티레티코스』는 여러 예를 제시한다. 시편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위한 기도의 원천, 구약 성경 중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생각과의 싸움으로서 수도승적 금욕수행

내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는 여덟 가지 악령들 각각이 우리 안에 일으킨 생각들과의 전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들 각각에 맞서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쳐부술 수 있는 하나의 반론을 썼다.¹⁹⁶

생각과의 싸움은 수도승적 금욕수행의 본질이다. 사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한 — ‘세속인’ *kosmikós* —, 악령들은 대개 물질적 대상으로 숨는 것에 만족한다. 반면 고독 속에 사는 수도승들은 통상 이 대상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생각과 맞서 싸워야 한다.’¹⁹⁷ 악령들은 공동체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암자 *kéllion*에 홀로 사는 독수도승들에게 ‘노골적으로’¹⁹⁸ 자신을 직접 드러낸다. 즉,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충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든 싸움이다.¹⁹⁹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속인, 회수도승, 독수도승 모두에게 유일하고 동일한 싸움이다. 악령들은 오직 상황과 나타나는 모습만 바꿀 뿐이다.²⁰⁰

에바그리우스는 유혹의 생각들에 맞설 병기고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인간 또한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에바그리우스도 앞서 인용한 편지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당신 마음의 '문지기'²⁰¹가 되고 심문 없이 어떤 생각도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생각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여호 5.13)라고 물으십시오.²⁰² 그가 가족 중 하나라면 당신을 평화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원수 중 하나라면 당신을 분노로 동요시키거나 욕망을 자극할 것입니다. 사실 악령들의 생각들은 이런 유형을 지닙니다.²⁰³

이런 식으로 ‘항상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검사하는’²⁰⁴ 사람은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절호의 기회를 빼앗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면 — 사실 어떤 녀석들은 매우 겁싸다²⁰⁵ — 그때 그들의 입을 닫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바로 반론이다.

결론: 영성생활에서 반론의 의미

영성생활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인 ‘약속된 땅’을 소유하기 위한 불굴의 싸움이다.²⁰⁶ 이 싸움은 우리 마음의 ‘땅’에서 전개된다.²⁰⁷ 영적 ‘이스라엘’의 옛 적이기도 한 이방인 ‘필리스티아인들’은 그 점령을 방해하려고 애쓴다.²⁰⁸ 이 목적에 기여하는 욕정들의 무리를, 에바그리우스가 처음으로 여덟 가지 악덕 목록으로 요약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악령들은 우리 안에 욕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우리에게 그들의 유혹하는 ‘생각들’²⁰⁹이라는 ‘불화살’(에페 6.16)을 쏘아 댄다.

그것들은 감각적·물질적 세계와의 관계에서 마치 봉인 '자국'처럼 우리 정신 안에 남아 있는 저 희미한 잔재들의 죄스러운 왜곡이다.²¹⁰ 이 모든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 정신에 각인되어 정신을 양육하고 형성하며,²¹¹ 그런 식으로 정신을 대상들에 연결한다. 그것은 또한 피조물의 '존재 이유들' *lógoi*과 관계되는 가장 높은 개념적 표상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각인된) '인상들은' 오직 인간이 그것들을 욕정으로, 즉 욕망과 분노로 받아들일 때만 경멸적인 의미에서 '생각들'이 된다. 사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이나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예정된 우리 정신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²¹²

인간이 일상생활의 동요를 피하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인상'은 마치 살아 있는 '표상'처럼 영혼의 근저에서 소위 정신의 영적인 '눈'앞에 떠오른다.²¹³ 각자 경험으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분노의 본성, 즉 증오·화·격노에 맞서는 움직임을 위해 유익하다. 증오·화·격노는 기도 생활에 가장 나쁜 적들이다.

신학과 영성생활에서 이 분노의 충동이 낳는 파괴적 결과들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분노의 충동은 정신을 눈멀게 하고, 분노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바로 에바그리우스가 『안티레티코스』에서도 지치지 않고 분노의 생각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다.

이 '표상들'로 가득 채워진 인간은 하느님 대신 그것들과 '대화'를 시작하며,²¹⁴ '순수한' 방식으로 자기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지 않고, 온갖 욕정과,²¹⁵ 결국 온갖 생각²¹⁶에서 자유롭지 못한 순간부터 그렇게 '정신의 천상적 상태를 파괴한다'.²¹⁷ 하느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분께 영적으로 다가가며'²¹⁸ 그 자신이 '영적이 되어야'²¹⁹ 한다. 사실 하느님은 정신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²²⁰ 즉, 삼위일체 하느님은 절대 위격적 존재로서 '어떤 중개 없이'²²¹ 창조된 영에게 다가가신다. 이 위격적 존재는 '기도의 상태' 중에 있는 창조된 '하느님 형상'인 정신 안에서 그 '복된 빛'을 거울처럼 비춘다.²²²

이제 기도하는 것이 '생각들을 버리는 것'²²³이라 한다면, 이 기도는 얼마나 더 '온갖 욕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²²⁴이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사실 이 욕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바로 천국에서 우리 원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유혹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반대로 '진정한 기도'란 '하느님과 정신의 대화'²²⁵이자, '영과 진리 안에서, 곧 성령과 독생 성자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경배'²²⁶다. 이런 식으로 '신학자'가 된 사람은²²⁷ 더 이상 피조물에서 시작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에서 시작하여 찬미가로 하느님을 찬양한다'.²²⁸

따라서 최초의 아담을 희생자가 되게 했던 그 유혹자의 이 끊임 없는 제안들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능성

이 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지키는 데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악령들이 모두 함께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들을 한꺼번에 우리 안에 밀어 넣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유익하다. 사실 정신은 보통 동시에 두 가지 감각적 대상의 개념적 표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²²⁹ 이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직접 반대되는 욕정적인 생각들을 위해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악령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인위적으로 자신 안에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못으로 못 빼내기'²³⁰라는 방법이다.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다. 확실히 특정한 악습을 대적하는 수단으로서 반대되는 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²³¹ 반론도 이런 맥락에 부합한다.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자신이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와가 무분별하게 그랬던 것처럼 적과 '논쟁하지' 않았고, 단순히 악마의 말에 하느님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그렇게 유혹자의 입을 막으셨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순수한 하느님 말씀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찾는다. 수도승들은 성경을 정해진 시간에²³² 규칙적으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되새김질'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한 후,²³³ 노동 중에 그 말씀을 관상적 방법으로 반복했고, 그런 다음 '기도'로 바꾸었다.²³⁴ 이 '화살기도들'은 종종 매우 짧았고, 내용상 그 당시 수도승의 영적 성향에 부합했다. 강

한 유혹을 받을 때 ‘청원’, ‘찬미’, ‘중재’에²³⁵ 종종 솔직한 도움의 절규가 부가된다. 그때 반론은 ‘온갖 지상적 생각을 몰아내는’²³⁶ 저 ‘짧고 열렬한 기도’²³⁷가 되어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수도승’을 ‘정신-수도승’으로 변화시킨다. ‘정신-수도승’은 기도 중에 성삼위의 빛을 본다. 영적인 의미로 ‘기도’는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와의 인격적 만남이며, ‘오로지 성삼위의 빛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상태’²³⁸다.

하느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이 빛나는 계시를 그 고유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포착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 계시는 순수하고 예기치 못한 은총의 선물이다.²³⁹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이 은총에 합당하게 되는 목적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다. 예를 들어 그는 반론을 통하여 유혹하는 생각들의 혼탁한 흐름을 멈출 수 있고, ‘계명들을 통해 회개하여 자기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²⁴⁰ 이로써 자기 정신을 오직 ‘하느님 생각’²⁴¹에 연결하게 된다. 기도와 반론 간에 이렇듯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의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다.

그대가 유혹받을 때 그대를 괴롭힌 놈에게 분노에 찬 말을 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마라. 사실 그대 영혼은 생각들에게 영향받았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그러나 그대가 적에게 분노에 찬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제시한 표상을 깨뜨려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분노의 자연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좋은 표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⁴²

이것은 반론의 부정적 측면인 유혹의 생각들에 대한 직접적 대립이다. 긍정적 측면은 이미 언급한 대로 거룩한 천사들과, 무엇보다 하느님께 드리는 짧은 호소로 이루어진다. 이 호소는 우리 정신을 악령의 제안들에 강박적으로 매이지 않게 하고, 기도 자체를 위해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에바그리우스는 다시 한 번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

유혹의 순간에 정신을 불순한 생각에서 또 다른 [중립적인] 생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 사악한 선동자(탈출 3,7)²⁴³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정신이 한 대상에 붙들려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면 욕정에 떨어지고, 행위의 죄로 나아갈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다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화와 철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²⁴⁴

그러나 반론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과 더불어 프락티케’²⁴⁵를 실천하기를 원할 때 영성생활에서 우리가 호소해야 할 도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생각들에 대한 수많은

반박이 사실상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점차 더 고차원적 의미의 '기도'로 이끈다. 에바그리우스 자신이 이런 식으로 대상들을 본다는 것을 아래의 '반박'이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결론을 짓고자 한다.

근심 중일 때 기도에서 영적인 말들을 찾고 싶은 영혼에게: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시편 38,22).²⁴⁶

에바그리우스는 같은 구절을 다른 문맥에서는 이렇게 주해한다.

기도에 대한 훌륭한 소개 *proömion*는 이것이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주님, 저의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시편 38,22-23). 사실 [이 구절은] 그 자체 안에 직접 성삼위를 내포하고 있다!²⁴⁷

안티레티코스

여덟 가지 생각에 관한 에바그리우스의 담화

머리말

I. 하늘 아래(코헬 1,13) 있는 이성적 본성의 한 부분은 싸움을 하고, 한 부분은 싸우고 있는 자를 도우러 오고, 한 부분은 싸우는 자에 맞서 용기 있게 전투를 일으키고 복돋우며 그에 대적해 싸운다.²⁴⁶ 싸우는 자들은 사람이고, 그들을 돕는 자들은 하느님의 천사이며, 그들의 적대자는 악령이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하느님 인식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면(사편 17,2), 그것은 악령들의 강력한 힘이나 조력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자들의 느슨함 때문이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게 하셨다(루카 10,19). 당신의 모든 가르침에 더하여 사탄의 유혹을 당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했던 바를 우리에게 주셨다(참조: 마태 4,1-11; 루카 4,1-13). 전투할 때처럼 악령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에페 6,16),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들에게 대응한다. 이는 우리 안에 불순한 생각이 남아 있지 않게 하고, 행

위로 실현되는 죄로써 영혼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며, 영혼을 더럽혀 죄의 죽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짓는 자는 죽을 것이다(에제 18,4). 사실상 악에 한마디 말로 응답할 수 있는 확고한 생각이 정신 안에 없을 때, 정신은 쉽고 빠르게 죄를 범하게 된다.

3. 코헬렛이 “악한 행동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는다”(코헬 8,11)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현명하게 보여 준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말한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잠언 26,4-5). 사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그의 어리석음에 맞추어 우둔한 자에게 대답하고 악령들과 비슷해진다. 그의 분노는 독사의 분노다(신명 32,33). 반대로 잘 참는 사람은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시편 37,8)라고 쓰여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했고, 그 어리석음의 악령을 반박했으며, 그 악령에게 이렇게 지적했다. ‘보라, 너는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음모를 꾸몄다.’

4. 우리는 싸움의 순간에 기만하는 악령인 우리 적에게 대응할 적합한 말을 신속히 찾지 못한다. 그 말들은 성경 안에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개별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들을 뽑았는데, 이는 우리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전사이자 투사로서 전투에서 그것들로 무장하여 용맹스럽게 필리스티아인들에 맞서 나아가기 위해서다(탈출 13.17 참조).

5.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즉, 우리가 악령들에 저항하고 그들에게 대응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거슬러 더욱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옴에게서 그것을 배웁니다. 옴은 “내가 말하려 하면 그들은 나를 치네”(옴 4.4)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평화로이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거슬러 싸웠다네”(시편 120.7)라고 말한 다윗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구속주의 권능으로 굳건히 그들에게 논박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요한 14.1)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요한 15.10) 요르단을 건너 팔마의 도시(신명 34.3)²⁴⁹에 이를 것입니다.

6. 이 전투에서 우리는 영적 갑옷이 필요하다(에페 6.11.13). 즉, 올바른 신앙, 완전한 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 영웅들의 용맹한 몸짓, 겸손, 거의 혹은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않는 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1테살 5.17)다. 그러나 만일 빵과 물로 배불리고 쉽게 성을 내고 기도를 경멸하고 소홀히 하며, 이단자들과 친하면서²⁵⁰ 영적 싸움을 견디고 정의의 월계관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다. 자! 바오로 사도는 말한다. “견뎌야 할 싸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하고(1코린 9,25) 모든 이를 항상 온유하게 대한다(티토 3,2). 그는 어디서나 성을 내지도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손을 들어 기도한다(1티모 2,8).”

7.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때, 영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죄에 맞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히브 12,4)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 인식에 맞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과 온갖 요새를 부수면서(2코린 5,10), 그리고 ‘인간-수도승’ l’uomo-monaco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수도승’ l’intelletto-monaco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서 말이다. 인간-수도승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죄에서 멀어지는 자다. 반면 정신-수도승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불러일으킨 죄에서 멀어진 자이며 기도 중에 성삼위의 빛을 보는 자다.

8. 이제 내 입을 열어(시편 119,131; 참조: 예레 6,19)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시험받은 내 영혼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1코린 5,4) 내가 수도승생활에 관한 이 책의 서두에서 연속적으로 열거했던 탐식의 악령,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일곱 가지 악령에 맞서 싸울 때다.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복된

교부들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수도승생활의 온갖 싸움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9. 내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서 여덟 가지 악령들 각각이 우리 안에 일으킨 생각들과의 전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들 각각에 맞서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쳐부술 수 있는 하나의 반론을 썼다.

탐식

창세기에서

1. 단식의 노고는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땅만 경작하려 애쓰는 생각에 맞서:²⁵¹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창세 49,14-15).

탈출기에서

2. '지나친 단식으로 너를 괴롭히지 마라. 그것은 네게 유익하지 않고 네 정신을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생각에 맞서: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단식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칠십인역 성경: 탈출 38,26).²⁵²

민수기에서

3. 축제의 날에 고기를 먹으려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스무 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쿿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였기 때문이다”(민수 11,18-19-20).

신명기에서

4. 음식과 음료로 배불리도록 부추기고 배의 포만에서 오는 피해에 주의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신명 6,11-12).

5. 단식 계명이 얼마나 버거운지 상기시키는 생각에 맞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신명 30,11).

6. 음식과 음료로 배부르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영혼에 전혀 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맞서: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자기를 사랑하신 하느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자이신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신명 32,15).

사무엘기 하권에서

7. 제6시에²⁵³ 나에게 식사하도록 강요하는 탐식의 생각에 맞서: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2사무 3,35).

열왕기 상권에서

8. 빵과 기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다고 나를 걱정시키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1열왕 17,14).

9. 빵과 물로 배불리면서 성인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영혼에 맞서: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1열왕 22,26-27).²⁵⁴

열왕기 하권에서

10. ‘비축된 물품들은 분명 우리와 우리를 방문하는 형제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맞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2열왕 4,43 L-44).

시편에서

11. 심한 빈곤에 고통받는 생활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에 맞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시편 23,1).

12. 부족하지 않은데도 손님에 대한 애덕을 핑계로 필요 이상의 빵을 모으려는 생각에 맞서: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시편 37,25).

13. 음식과 의복만 걱정하고 참된 걱정은 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정녕 저는 제 죄악을 고백하며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시편 38,19).

14.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단식과 부단한 노고로 네 연약한 육체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그는 영원히 수고하며 끝까지 살리라. 지혜로운 자들이 죽는 것을 보지만 그 파멸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시편 49,10-11).

15. '철야로 네 삶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게도 지치게 하지도 말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주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19).

16. 음식과 음료를 걱정하고 그것들을 조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네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시편 55.23).

17. '철야는 네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너에 대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라'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의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시편 102.8).

18. 우리가 기름을 삼간다고 책망하고, 기름을 삼가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생각에 맞서:

저의 무릎은 단식으로 후들거리고 저의 살은 기름기 없이 말라 갑니다(시편 109.24).

19. 엄격한 단식에 끔찍한 죽음이 따르리라고 우리를 겁박하며 우리의 생활방식을 단념시키는 생각에 맞서: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시편 118.17).

20. 오랜 철야 수행을 풀고 쇠약해진 가련한 육체를 조금 쉬게 하라고 내게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내 집 천막에 들지 않으리라.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라. 내 눈에 잠도,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자리를, 야곱의 장사께 거처를 찾아 드릴 때까지(시편 132,3-5).

솔로몬의 격언에서

21. 머잖아 기아나 궁핍의 때가 오리라 예견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서서는 의인의 갈망은 채워 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잠언 10,3).
22. 그 열망이 마치 물로 공격받은 간과 비장에서 유래하듯 내 안에 포도주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는 생각²⁵⁵에 맞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머물러 있는 자는 자기 요새에 치욕을 남길 것이다(칠십인역 성경: 잠언 12,11 ㄱ).
23. 음식에 대한 열망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큰 사업을 하려고 고독을 포기하려는 생각에 맞서:
고생하는 자는 풍요로워지겠지만, 입술만 놀리며 노력하지 않는 자는 궁핍해질 것이다(잠언 14,23).

24. 빈약한 음식과 마른 빵에 슬퍼하는 생각에 맞서:

편안하게 먹는 마른 빵 한 조각이 불화 섞인 잔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잠언 17,1).

25. 축제의 날에 우리 육체에 어떤 작은 기쁨을 주면서 육체에 약간 관대하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생각에 맞서:

음식은 우둔한 자에게 유익하지 않고 종이 폭력으로 위세 부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잠언 19,10).

26.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위와 모든 내장의 고통을 예고하는 생각에 맞서:

술은 빈정꾼, 독주는 소란꾼 그것에 취하는 자 모두 지혜롭지 못하다(잠언 20,1).

27. 우리 단식과 생활방식을 맹세하라고 우리 정신을 강요하는 생각 — 이 관례는 수도승적 관습에 낫설다 — 에 맞서:²⁵⁶

즉시 '성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올라미다. 사실 그는 서원한 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잠언 20,25).

28. 우리가 곤궁한 이에게 우리 빵을 주는 것을 막고 걱정하게 하며, 곤궁한 이는 확실히 도처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의 문

을 두드릴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생각에 맞서:

어진 눈길을 지닌 이는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잠언 22,9).

29. 축제의 날에 살며시 우리에게 다가와 너무 오랜만에 한 번만 고기와 포도주를 들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술을 폭음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잠언 23,20-21).

30. 우리에게 한때의 기쁨을 상기시키고, 연회에서 술을 마실 때 손에 쥘 잔과 달콤한 포도주를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생각에 맞서: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잠언 23,31-32).

31. 배를 빵과 물로 채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의인들의 목장으로 악인을 데려오지 말고 배의 포만감에 속지 마라(칠십인역 성경: 잠언 24,15).

32. 축제의 날에 우리가 단식을 깨고 약간의 채소를 먹도록 부추기는 생각과, 교부들 앞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수치와 관련하여 우리

안에 생겨나는 생각²⁵⁷에 맞서:

죄로 이끄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러움도 있다

(집회 4.21).

33. '계속된 단식으로 네 몸이 그렇게 쇠약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절대 음식과 음료를 삼가지 마라'는 아침으로 나를 설득하고 내게 애걸하는 악령에 맞서:

양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잠언 26.24).

34. 주님의 계명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 주며 그것들이 영혼과 육체에 많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게 말하는 생각에 맞서:

사랑하는 이의 매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헤프다

(잠언 27.6).

코헬렛에서

35. 병들지 않았음에도 약간의 포도주를 내게 갈망하게 하고, 포도주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내게 말하는 생각에 맞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코헬 3.11).

36. 내게 한때의 기쁨과 연회를 상기시키고 이런 생활방식을 갈망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코헬 7.2).

37. 허리에 많은 옷을 두르고,²⁵⁸ 사막으로 나아가 노천에 항구히 서서 삶의 규칙을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따르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게다가 우리가 통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헛된 생각에 맞서: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코헬 7.16).

욥기에서

38. 우리에게 예전의 쾌락들을 기억시키며 현재의 고통을 보여 주는 생각에 맞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욥 2.10).

미카서에서

39. 자기 가족에게 가서 온갖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찾으려는 생

각에 맞서:

너희는 어서 떠나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미카 2,10).

하바쿱서에서

40. 축제의 날에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탐식의 생각에 맞서: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하바 3,18).

이사야서에서

41. 수도생활의 규율보다 더 그것들을 칭송하면서 우리에게 쾌락과 좋은 것들로 가득한 식탁을 상기시키는 생각에 맞서: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사 5,20).

42. 빵과 물의 부족으로 피곤하고 게으른 자의 생각에 맞서: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

이 너희의 스승을 밋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이사 30,20-21).

예레미야서에서

43. 심한 단식으로 쇠진하고 엄격한 규율로 약해지는 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 주님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 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당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예레 15,15).

애가에서

44. 우리에게 굶주림이나 지병을 생각하게 하면서 위¹와 몸의 모든 관절을 바싹 말려 우리 몸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악령의 제안 앞에서 주님께:

보소서, 주님, 곤경 속에 있는 저를. 제 속은 들끓고 제 마음은 안에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애가 1,20).

다니엘서에서

45. 빵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들 외에 채소를 먹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 그 영혼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채소를 먹는 시험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난야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다니 1,11-16).

마태오복음서에서

46. 전투 중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영혼에게: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마태 4,1-2).

47. 환대를 핑계로, 혹은 육체의 질병과 끊임없는 고통을 핑계로 음식과 의복을 걱정하는 생각에 맞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마태 6,25).

48. 탐식에 사로잡혀 육체를 만족시키고 쾌락을 좇으면서 생명의 길을 간다고 믿는 영혼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마태 7,14).

루카복음서에서

49. 우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식과 의복을 궁핍한 이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생각에 맞서 — 그 생각은 틀림없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약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수고하지 않고 먹고 입으려 하는 게으른 이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사도행전에서

50.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에게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영혼에게: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사도 2,44-45).

51. 빵과 물을 아끼느라 당할 환난을 싫어하는 영혼에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사도 14,22).

로마서에서

52. 음식과 음료에 매달리며 육신을 좀 돌보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 13,14).

53. 약간의 채소를 미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로마 14,2).

코린토 1서에서

54. 수확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음식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1코린 9.25).

코린토 2서에서

55. 큰 필요성 때문에 우리 안에 싹터 점차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는 생각에 맞서: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2코린 4.8-11).

56. 우리에게 위·간·허리의 통증과 복부의 팽창을 묘사해 보여주는 생각에 맞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2코린 4,16).

57. 우리 몸 전체가 점차 쇠약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에 맞서: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2코린 5,1).

58. 처음에는 우리 안에 동정심을 일으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도록 설득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생각에 맞서: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합니다(2코린 9,7; 참조: 시편 22,8-1).

59. 단식의 폐해가 유발하는 몹쓸 병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요리 된 음식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내가 약할 때에 나는 오히려 강합니다(2코린 12,10).

에페소서에서

60. 축제의 날, 다량의 포도주를 갈망하는 생각에 맞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페 5.18-19).

필리피서에서

61. 손노동으로 음식을 구하려 애쓰지도 말고 부모에게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지도 말라고 권유하지만 — 부모는 가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 후에 다른 이들이 영혼에게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 줄 것이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필리 4.5-6).

62. 내게 굶주림과 빵의 부족을 예언하며 다른 이의 호의를 받아야 하는 수치를 불안하게 여기는 생각에 맞서: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2-13).

테살로니카 1서에서

63.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1테살 4,10-12).

테살로니카 2서에서

64.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배 터지게 빵을 먹도록 강요하는 생각에 맞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2테살 3,10).

히브리서에서

65. '수도승생활은 힘들고 매우 버거우며, 우리 몸을 많이 지치게 하고 영혼에 어떤 이득도 없다'고 말하는 생각에 맞서: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

를 가져다줍니다(히브 12,11).

66. 음식에 관심을 붙박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히브 13,16).

티모테오 1서에서

67. 복통이나 중병이 없음에도 서간에서 복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하는 권고를 빙자하여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자신을 결백하게 지켜 가십시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이나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도 좀 마시십시오(1티모 5,22-23).

야고보서에서

68.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과 세상의 계명들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

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야고 4,4).

요한 1서에서

69. 단식의 계명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라 믿게 만드는 생각에
맞서:

하느님에게서 난 모든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1요한 5,4).



우리로 하여금

탐식의 악령을 물리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담화 2

음욕

탈출기에서

I. 한 남자와 결합한 여자를 내 정신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탈출 20,17).

2.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음욕의 유혹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 너희는 이 모든 노고 후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슬픔에 맞서: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면, 나는 네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네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탈출 23,22-23).

3. [고작] 한 시간 후면 음욕의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리라는 견해 *ragionamento*에 맞서: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일 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탈출 23,29-30).

4. ‘청년기는 음욕을 견딜 수 없고 주님께 순수한 생각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맞서:

인구조사를 받는 스무 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탈출 30,14).

5. ‘간음을 범하거나 불순한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해도 청년기에는 죄가 되거나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탈출 32,33).

신명기에서

6. 자기를 선동해 흥분시키고 눈앞의 여자와 불결한 짓을 행하는 음욕에서 자기 영혼을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의 의견에 맞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신명 6,3).

7. 불순한 갈망을 통해 음욕의 악령에 다가가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신명 6,13).

8. 밤낮으로 음욕에 괴로워하면서 이를 극복할 희망을 저버리는 영혼에게: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신명 7,17-18).

9. 처음에 사악한 욕정을 여러 형상으로 다양화하고, 그런 다음 불순한 생각들을 받아들여 마침내 이 생각들 중 하나의 노예가 되거나, 음욕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불행한 영혼에게:

너는 오늘 주 너의 하느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 되시어 네 앞에서서 건너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곧바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신명 9,3).

10. 음욕의 영이 그들을 조롱하며 잠시 휴식을 허용하자마자 음식
에 관대해지고, 이로써 자기절제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생각에 맞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
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
식처와 상속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신명 12,8-9).

11. 자기 지체들을 자극하는 악령에 흔들리고 동요되는 영혼에게
— 이 악령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구절을 이해한다: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 있게 하시는 칼이시
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
리라(신명 33,29).

판관기에서

12. 슬픔으로 아케디아에 떨어져 기도를 더럽히는 불순한 생각들
에 더는 저항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서 나가실 것이오(판관 4,14).

13. 음욕의 생각들로 무절제해져서 이것들을 자기에게서 떨쳐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죄의 사슬과 악인들의 간계를 고려하지 않는 의견에 맞서: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려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 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판관 16,20-21).

사무엘기 상권에서

14. 갑자기 내 정신에 나타나 음욕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를 에워싸는 생각들을 쫓아내는 주님의 천사께: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1사무 2,1).

15. 내가 불순한 갈망에 저항할 수 없도록 밤에 여자의 모습으로 음란하게 나타나는 혐오스러운 음욕의 악령에 맞서: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1사무 2,4-5).

16. 불순한 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뱀을 뜻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아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 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1사무 11,1-2).

열왕기 상권에서

17. 생각들을 통하여 나의 절제를 빗나가게 하고 망쳐 놓기를 원하는 음욕의 악령에 맞서:

주님께서서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당신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1열왕 21,3).

역대기 하권에서

18. 자기 힘을 넘어 음욕의 악령에게 유혹당했다고 믿는 영혼에게:
그 나라는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백성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파라오 느코에게 내줄 금과 은을 요구했다(2역대 36,3-4; 참조: 2열왕 23,35),

에즈라기에서

19. 밤에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환시들을 보여 주는 음욕의 악령 앞에서 주님께:
나는 [나의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혼란스럽고 당신께 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 죄악은 저희 머리로 붙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에즈 9, 6-7),
20. 음욕의 악령에 맞서 고된 전투를 치른 뒤 자기절제와 순수함에 도달한 영혼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에즈 9,11).²⁵⁹

시편에서

21. 다양한 얼굴의 [형상]으로 정신을 분산시키며 우리를 선동하고 괴롭히는 불순한 생각의 무리에 대하여 주님께: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많은 이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싶으냐?”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의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시편 3,2-4).

22. 분노는 불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불순한 생각은 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분노의 힘이 음욕의 생각에 반대된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시편 4,5).

23.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종종 억지로 우리 안에 음란한 형상을 새기며 부적절한 사지의 정욕을 통해 정신을 움아매는 불순한 생각에 맞서: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시편 6,9-10).

24. 육체의 욕망을 통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을 때 우리 정신에 음욕의 불결한 죄를 범한 한 수도승을 보여 주는 음욕의 악령 앞에서 주님께:

원수들은 영원히 폐허 속으로 사라져 가고 그들의 성읍들은 당신께서 짓부수어 버리시어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십니다(시편 9,7-8).

25. 격렬한 음욕의 생각과 함께 영혼을 혼란시키는 착란으로 갑자기 이성을 잃게 하면서 음욕을 떨쳐 내려 애쓰는 사람의 허리 아래를 보란 듯이 엄습하는 음욕의 불순한 악령 앞에서 주님께 — 이 악령이 우리를 유혹할 때, 즉시 일어나 넓고 힘찬 보폭으로 독방을 왔다 갔다 하며 걷는 것이 좋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시편 13,4-5).

26. 욕정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계명들보다 음욕이 더 강하다고 확신하는 영혼에게:

저는 그들을 바람 앞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오물처럼 밖으로 쏟아 버렸습니다(시편 18,43).

27. 갑자기 육체에 덤벼들어 불순한 생각들을 정신에 밀어 넣지만 정신을 이기지 못하는 음욕의 악령 앞에서 주님께: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 두르셨습니다. 이에 제가 당신께 제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다(시편 30,12-13).

28. ‘네가 음욕의 악령에 맞서 일어나면, 그 녀석은 네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맞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시편 35,4).

29. ‘첫 번째 악령보다 더 악랄하고 파렴치하고 강한 또 다른 음욕의 악령이 네게 엄습할 것이다. 그 녀석은 쉽게 네 영혼을 행위로 실현되는 죄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생각에 맞서:

그들은 바람 앞의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시편 35,5-6).

30. 음욕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자루옷을 입은 채 참회한 다윗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도 자루옷 입기를 거부하는 영혼에게: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루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
행하였으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시편 35,13).

31. 끊임없이 영혼을 괴롭히는 불순한 형상이 정신 안에 고착된 것
을 보면서, 자기 안에 음욕의 불순한 생각들이 머물러 있는 것에
낙심하고 더는 그것들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 영혼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
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시편 37,10).

32. 별거벗은 미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걸음걸이로 자극하며 온몸
을 불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를 잊게 만들며 이성
을 잃게 하는 음욕의 악령에 맞서:

그러니 하느님께서서는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천막에
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 버리시리라
(시편 52,7).

33. 정결을 잃고 난 후 사람들 앞에서 당하게 될 수치를 예고하는
생각에 맞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가리라.
그들은 지붕 위의 풀처럼 되리라. 뽑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고(시
편 129,5-6).

잠언에서

34. 밤에 꿈속에서 나를 불결한 행위로 이끌고, 낮에 생각들로 다시 우리를 책망하고 조롱하는 음욕의 악령에 맞서:

나도 그렇게 너희가 불행할 때 웃고, 파멸이 너희에게 닥치고 혼란이 갑자기 너희에게 닥칠 때 기뻐하리라(잠언 1,26-27).

35. 어떤 기혼 여성이 우리를 여러 번 방문함으로써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녀와의 대화를 오래 끌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너무 오래 대화하지 마라(잠언 5,20).

36. 테바이드의 예언자 성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²⁶⁰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즉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인상 깊게 마음에 새기고 즉시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정신에 맞서:

너는 마음속으로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걸려들지 마라. 창녀는 빵 한 덩어리면 되지만 남의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노린다(잠언 6,25-26).

37. ‘창녀를 보는 것 정도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누가 불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을 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 이
옷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그러하다. 그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잠언 6,27-29).

38. 유혹의 원인도 모르고, 싸움에 진 악령이 우리를 떠날 때는 우리
안에 완벽한 자기절제를 남겨 둔다는 생각도 못하는 영혼에게:

은에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그러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잠언 17,3).

39.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서 여러 번 뉘우쳤던
그 죄로 우리를 다시 유인하는 불순한 생각에 맞서:

자기가 계운 데로 되돌아가는 개처럼 우둔한 자는 제 어리석음
을 되풀이한다(잠언 26,11).

코헬렛에서

40. 우리가 사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준 그 집에 대한 기억
을 우리 안에 떠올리게 하는 생각에 맞서:

지혜로운 이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듣
는 것보다 낫다(코헬 7,5).

41. 불순한 생각의 유혹에 빠져 굶주림과 목마름과 철야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몰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영혼에게:

군주가 네게 화를 내어도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함은 큰 잘못도 막을 수 있다(코헬 10,4).

아가에서

42. 영혼 안에 남아 있는 불결한 생각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에게: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뻔히 보지 말아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 까요(아가 1,6).

욥기에서

43.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자기 본성과 관계없다고 믿는 영혼에게:

욥은 '혹시나 내 아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했다(욥 1,5).

44. 말할 수 없이 큰 유혹인 음욕의 악령에게 유혹을 받고, 이 유혹에 당황하며 이 악령이 얼마나 뻔뻔하고 두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아연실색하는 영혼에게: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뿔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욘 7,1).

45. 음욕의 악령들에 관해 나에게 예언하는 생각에 맞서: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
다네(욘 5,14).

46. 이스라엘에게 밀 대신 짚과 그루터기를 수확하라고 강요하는
음욕의 악령에 맞서:

하느님께서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
대로 되갚으십니다(욘 34,10-11).

47. 우리에게 던져진 이 불의 생각들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영혼에게:

[레비아탄]의 입에서는 불타는 햇불들이 뿜어 나온다(욘 41,11).

이사야서에서

48. “나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힘겨운 단식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어떤 손해도 입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음욕에 맞서: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이사 14,30).

49. 내 정신 안에서 한 여성과 결합하여 가장이 되고 음욕으로써 굶주림과 싸우지 말라고 유혹하는 악령에 맞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지어 내어 불경한 짓을 저지르며 주님을 거슬러 배신을 말하고 굶주린 이의 속을 빈 채로 버려두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이사 32,6).

예레미야서에서

50. 성경과 성경에서 다루어진 주제들로부터 구실을 찾아내는 음욕의 악령 앞에서 주님께: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예레 20,12).

애가에서

51. 내 안에 남아 있는 음욕의 생각들에 관하여 주님께:

주님, 제 고통을 보소서, 원수가 의기양양해합니다(애가 1,9).

52. 밤에 악령이 내 영혼을 저주하고 모든 본성을 뒤집어엎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께: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제가 멸시만 당합니다(애가 1,11).

53. 밤에 혐오스러운 상상에 빠지는 영혼에게: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네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아라(애가 2,19).

54. 음욕의 악령이 욕정적 갈망을 통하여 내 정신에 불결한 환영을 남길 때, 주님께:

그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탄원과 간청에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제 소리를 당신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르던 날 당신께서는 가까이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애가 3,55-57).

다니엘서에서

55. 생각들이 멈추자마자 즉시 육체의 지체들을 살피며 집적거리기 시작하는 음욕의 악령에 맞서 — 이 악령에게 유혹당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바를 안다. 이 악령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전투 중에 독방을 걷고, 밤낮의 대부분을 기도하고, 앉아서 잠을 조금만 자고, 거친 베옷을 입고, 다량의 빵과 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령을 물리쳤을 때 자제력을 얻게 되고 더는 강탈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 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일곱 해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에 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다니 4.28-29).

마태오복음서에서

56.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신의 표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8).

57. 음욕의 불결한 생각으로 유혹을 받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태 26.41).

코린토 1서에서

58. 때로는 우리를 광장에 가게 하고 또 때로는 광장 멀리서 배회하게 하는 생각²⁶¹에 맞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1코린 6,9-10).

59. 우리 마음 안에 음욕을 자극하는 생각에 맞서 — 주님께서는 언제 음욕이 실행에 옮겨지는지 보고 계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이만삼천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1코린 10,8).

에페소서에서

60. 때로는 밤의 환영으로 우리를 악의 손에 넘기고 또 때로는 낮에 우리 정신 안에 환영을 살아 있게 하는 불결한 생각에 맞서:

이것을 꼭 알아 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에페 5,5).

야고보서에서

61. 사람을 거스른 유혹을 주님께 돌리려는 생각에 맞서: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야고 1,13-14).

62.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악령들이 자기 안에 온갖 유혹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야고 4,1).

베드로 1서에서

63. 불을 일으키며 허리에 돌진하여 거기서 아래로 이동하는 악령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자의 생각에 맞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1베드 4,12-13).

64. 고뇌와 근심으로 넘어져 홀로 심하게 유혹당하고 있다고 여기
는 자의 생각에 맞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
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
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1베드 5,8-9).

베드로 2서에서

65. “너는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악령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
고 말하며 위협하는 생각에 맞서 — 나는 그 악들을 글로 쓰고 싶
지 않았다. 이는 싸우는 사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미 세상에서 물러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단순
한 이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악령들이 정말로
몹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소수만이 그것을 얘기할 수 있
다. 사실 거룩한 천사들의 관대함에 나는 자주 놀랐고, 어째서 천
사들이 [이 악령들을] 불태우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들을

소탕하지 않는지 자문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
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
십니다(2베드 2,9).



우리로 하여금

음욕의 악령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탐욕

창세기에서

1. '꿈속에서 네 친척이나 부자가 네게 돈을 보내게 하겠다'고 내 마음에 약속하는 악령에 맞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 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창세 14,22-23).

2. 나에게 흑독한 가난과 거기서 유래하는 불행[의 상태]를 예견하고 '네가 궁핍한 날에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던지시 일러 주는 생각에 맞서: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

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
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
이 될 것입니다(창세 28,20-22).

탈출기에서

3. 선조들이 우리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탈출
21,17).

4. 탐욕 때문에 갓 제자가 된 자에게 많은 일로 부담을 지우도록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
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탈출 23,9).

레위기에서

5. 필요하여 청하는 이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
해서만 따로 챙겨 두라고 유혹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19,18).

6.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형제가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것을 방해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형제를 지치게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네 이웃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너의 주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레위 25,17).

7. 오랜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게다가 가난 때문에 몹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려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레위 25,35).

8. 자기 형제에게 능력을 벗어난 손노동을 강요하는 생각에 맞서:

아무도 중노동으로 자기 형제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칠십인역 성경: 레위 25,46).

신명기에서

9.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가난한 형제의 청을 거절하려는 생각에 맞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

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신명 15,7-8).

10. 소유물을 자기만 가지려 하고 형제들에게는 베풀려 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신명 28,17-18).

판관기에서

11. 가난보다 부를 좋아하는 생각에 맞서: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판관 8,2).

열왕기 상권에서

12.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긴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베풀자마자 곧 후회하는 영혼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1열왕 8,61).

13. 예수의 가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재물을 축적하고, 예언자 엘리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잊어버린 영혼에게:

엘리아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아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아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아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아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아를 따라나서서 그의 시종을 들었다(1 열왕 19,19-21).

열왕기 하권에서

14. 자기에게 할당된 돈과 재산을 아껴서 형제에게 나눠 주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에게:

큰 솔을 걸고 예언자들의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2열왕 4,38).

15.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금을 받은 후, 게하지의 나병을 망각하며 그 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먼저 사악한 욕정을 직시하고, 다음으로 그 욕정들을 감싸고 있는 의견들을 직시하면서 예언자 엘리사가 어떻게 탐욕의 생각을 드러냈는지 숙고한다. 생각들이 사악한 의도로 정신을 방해하여 나병 환자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 종은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과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겨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 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얗졌다(2열왕 5.25-27).²⁶²

시편에서

16. “너는 네 선조들의 유산을 저버렸다”고 말하며 나를 괴롭히는 탐욕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시편 16.5).

17. 선조들이 우리를 저버렸고 또 우리 요구를 충족시킬 금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생각에 맞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서는 나를 받아 주시리라(시편 27,10).

18.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부유하고 그들의 부로 인해 모두에게 존경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에 맞서: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시편 34,3).

19.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탄과의 논쟁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꾀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시편 37,32-33).

20.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집과 재물과 자기 선조들을 갈망하는 영혼에게:²⁶³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시편 45,11).

21. 재물을 돌보는 데 몰두하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부의 괴로움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시편 62,11).

22. 선조들의 집은 훌륭하게 여기고 [우리의] 독방은 시시하고 불품없이 여기는 생각에 맞서: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시편 84,11).

23. 돈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면서도 주님의 은총에서 오는 희망은 고려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주님은 흠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시편 84,12).

24. 우리가 누렸던 재물에 대한 기억,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얻으려는 충동, 혹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유지하고 간직하려는 탐욕 때문에 우리 정신이 동요될 때, 주님께:

제 마음을 잇속이 아니라 당신 법으로 기울게 하소서(시편 119,36).

25. 돈을 사랑하고, 남들을 환대하겠다고면서도 오히려 이용하게끔 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하는 자들의 생

각에 맞서:

거만한 자들이 밋을 숨겨 두고 그물처럼 줄을 펼쳐 놓았으며 저
를 잡으려 길 옆에 올가미를 놓았습니다(시편 140,6).

26. 흑독하고 긴 가난의 삶을 예언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사람이란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와 같습니다(시편 144,4).

잠언에서

27. 탐욕 때문에 좀처럼 동정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에게:

자애와 진실이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을 네 목에
묶고 네 마음속에 새겨 두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과 사람 앞
에서 호의와 호평을 받으리라(잠언 3,3-4).

28. 가난과 나약한 육체를 걱정하게 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
해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잠언 3,27-28).

29. 간절한 소유욕 때문에 밤낮없이 손노동 하도록 뉘달하고 성경 연구를 그만두게 하며, 병자 방문과 그들에 대한 봉사를 만류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소용이 없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 구해 준다(잠언 11,4).

30. 우리가 재산을 멋대로 낭비하도록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재산은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만 가난한 이는 헐박을 들을 일도 없다(잠언 13,8).

31. 무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영혼에게:

지혜를 얻는 것은 금보다 좋고 예지를 얻는 것은 은보다 낫다(잠언 16,16).

32. 부에서 만족과 영광을 찾으려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잠언 22,1).

33. 자선으로 탐욕의 생각에서 벗어나고서도 슬픔과 불평으로 다시 그것에 구속되는 영혼에게 — 이는 탐욕과 제대로 싸워 본 경험이 없고 이성적 본성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의 특성이다:

하느님은 쾌활하고 관대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잠언 22,9).

코헬렛에서

34. 우리에게 집과 재산과 [그것과] 연관된 생활방식을 상기시키는 생각에 맞서: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

35. [공동체] 안에 필요한 재물을 보호하려고 형제들의 선의이나 성경 구입을 핑계로 [공동체] 바깥 사람들에게서 모금하려고 노력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코헬 5,9).

욥기에서

36. 욥에게 큰 물질적 버팀목이었던 재물과 재산의 상실을 상기시키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욘 1,21).

이사야서에서

37. 양식과 의복을 축적하고 필요한 형제에게 그것을 내어 주지 말라고 유혹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7).

마태오복음서에서

38. 형제의 가난을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않는 영혼에게: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39. 빼앗긴 재물과 재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사랑으로 자기 겹옷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도둑 맞은 재물 때문에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마태 5,40).

40. 확실히 되돌려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형제에게 꾸어 주기를 주저하는 생각에 맞서: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2).

41. 공동체를 위한 재물을 따로 떼어 두려 하고 이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을 지치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마태 6,19).

42. “재물을 소유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악령에 맞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43. 필요한 순간에 남들이 자기를 도우러 오기를 바라면서도 불행하고 궁핍한 사람은 도와주려 하지 않는 영혼에게: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마르코복음서에서

44.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재물을 나누지 않게 만드는 생각에 맞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마르 10.23).

로마서에서

45. 불평에 가득 차고 불행하며 슬픈 얼굴로 자선을 베푸는 영혼에게 — 이는 계명을 실천하는 자의 사랑과 거리가 멀다. 계명을 실천하는 자는 혐오스러운 욕정에서 벗어날 때 정신 안에 생기는 거룩한 인식 때문에 그런 욕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로마 12.8-9).

코린토 2서에서

46. 세상에 있는 친형제들과 부모가 눈에 보이는 부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고 믿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47. 궁핍한 이들을 위한 자선에 인색하려는 생각에 맞서 — 자선을 베푸는 동안 정신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베푼 것을 후회하고 다시 그런 생각에 얽매인다. 그런 생각은 정신을 방해하고 주님께 대한 인식에 이르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2코린 9,6).

에페소서에서

48. 형제들을 향한 선을 약화시키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

필리피서에서

49.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려 애쓰는 생각에 맞서: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필리 2,4).

50.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유함을 떠올리면서, 재산을 모으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까지(필리 3,7-8).

콜로새서에서

51. 탐욕으로 괴로워하고 탐욕이 낳은 우상 숭배에 눈멀게 하는 생각에 맞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콜로 3,5-6).

히브리서에서

52. 생필품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소유하고 축적하기를 바라는 생각에 맞서: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히브 13,5; 참조: 신명 31,6,8; 창세 28,15).

티모테오 1서에서

53.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는 세상임을 망각하고 음식과 의복에 만족하지 않는 영혼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1티모 6,7-9).

54. '탐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형제들과 손님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1티모 6,10).

티모테오 2서에서

55.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려 애쓰며 수입 때문에 세상사에

얽매이려는 생각에 맞서: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2티모 2,4-5).

베드로 1서에서

56. 재물이 사라져 지금 가진 게 없고 앞으로 다시 생길 가능성도 없으리라고 곤궁할 때 쓸데없이 드는 생각에 맞서: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로 4,11).

요한 1서에서

57. 형제들이 궁핍하지 않다 하여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고 행동으로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려는 생각에 맞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담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1요한 3,17).

58. 탐욕 때문에 행동으로는 형제들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내세우려는 생각에 맞서: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1요한 3,18).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악령과 싸워 완벽히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느님이요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슬픔

탈출기에서

1. 영혼에 엄습하는 슬픔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탄식을 듣지 않으신다고 믿는 영혼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탈출 2,23-24).

2. '주님은 악령이 야기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신다'고 믿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탈출 3,7).

3.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준수하려 노력하면 할수록 유혹이 더 커진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탈출 5,22-23).

4.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슬픔으로 무너지는 영혼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탈출 6,6-7).

5. 세상을 포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들은 금방 교활한 악령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고, [악령과] 공개적으로 맞닥뜨려 싸울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영혼에게 — 초심자들이 악령들

에게 지레 겁을 먹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수 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탈출 13,17).

6.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악령들은 모른다'는 생각에 맞서: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탈출 14,25).

7. 악령들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탈출 15,9).

8. '밤에 악령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에 휩싸일 때, 주님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탈출 15,16).

9. 우리를 힘껏 도와주는 천사를 보지 못하여 동요하는 영혼에게:
손 하나가 주님의 어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탈출 17,16).

10. 주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는 영혼에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탈출 23,20).

레위기에서

11. 밤에 겪는 공포로 인해 슬피하고 그 동요 때문에 불안이 영원히 남아 있다고 믿는 영혼에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레위 26,6).

신명기에서

12. '악령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맞서: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신명 1,29-30).

13. 갑자기 공중에서 자기를 야유하는 악령의 목소리로 인해 겁에 질린 영혼에게:²⁶⁴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그에게 싸움을 걸어라. 오늘 내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 넣기 시작하겠다.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너희 때문에 떨면서 몸서리칠 것이다(신명 2,24-25).

14. 불타는 눈빛의 악령을 보고 당황하는 영혼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신명 1,29-30).

15. 영혼은 흔들림이 없는데 갑자기 악령들이 야단법석을 떨며 육체에 덤벼들 때, 주님께: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 종에게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신이 당신의 업적과 위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신명 3,24).

16. 악령들의 공격에 벌벌 떨면서 주님이 자기를 저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신명 4,31).

17. 유혹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신명 8,16).

18. 밤이면 등과 허리로 기어오르는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악령들을 보고 동요하는 영혼에게: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신명 20,3-4).

19. 밤이면 덤벼드는 악령들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신명 31,6).

여호수아기에서

19a. 세상에서 물러나 주님께 대한 경외로 굳세어지기를 바라고 악령들이 일으킨 공포로 걸려 넘어지는 영혼에게: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9).²⁶⁵

20. 공중에 일어나는 불꽃과 무시무시한 환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수련에 다가가기로 주저하는 생각에 맞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여호 10,25).

판관기에서

21. 슬픔에 빠지고 이 때문에 밤의 환시로 동요하는 영혼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판관 5,12).

사무엘기 상권에서

22. 시편의 선율이 어떻게 육체의 균형을 바로잡는지, 등을 자극하여 신경을 마비시키고 모든 지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령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모르는 영혼에게: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1사무 16,23).

23. 칼을 들고 나타나는 악령에는 전쟁을 치르듯 맞서는 것이 좋다. 우리의 복된 사부 마카리우스도 얀네스Jannes와 얀브레스Jambres²⁶⁶도 버려둔 정원을 보러 가는 중 손에 칼을 들고 다가오는 악령을 보고 그렇게 맞섰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1사무 17,45).

24. 창공에 폭풍우를 일으킨 뒤 자기 목소리를 듣게 하는 악령에 맞서:

주님께서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1사무 17,47).

열왕기 상권에서

25. '내가 온갖 불결한 생각을 찾아서 드러내어 너를 다른 수도승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몹시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나를 위협하는 악령에 맞서:

너희에게 [이 말이] 충분하다. 즉, 갑옷을 입는 자도 그것을 벗는 자도 자만하지 않는다(1열왕 20,11).

열왕기 하권에서

26.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는 악령들로 동요하는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2열왕 6,16).

27. 거룩한 천사들이 창공에 가득한데 악령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2열왕 6,17).

시편에서

28. 악령들과 맞서 싸운다는 사실이 떨리고 두려운 영혼에게: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시편 2,4-5).

29. 밤에 나타나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환영들 때문에 주님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 하소서(시편 6,3-5).

30. 악령들의 사악함이 드리날 때 그들에 맞서 힘껏 싸우라고 격려하는 대신 도망가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시편 11,1).

31. 밤에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거든, 주님께: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 주소서(시편 17,13).

32. 악령들의 혐오스러운 목소리와 소란으로 놀란 영혼에게: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시편 20,8-9).

33. 밤에 전갈의 모습으로 우리 몸에 붙어 지체들을 공격하는 악령에 맞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지라도 내 적이요 원수인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시편 27,1-2).

34. 갑자기 공중에서 에티오피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령에 맞서: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렇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시편 27,3).

35. 예기치 않게 다가와 영혼을 곤경에 빠뜨리며, 때로는 슬픈 생각으로, 때로는 생각 없이 몰래 머리와 등에 엄습하는 슬픔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십니다. 나 너를 이끌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시편 32,7-8).

36. 불처럼 강렬하여 피부에 부황처럼 둥근 자국을 새기는 악령들 때문에 주님께 — 나는 이런 경우를 직접 목격하고 아연실색했다.²⁶⁷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 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시편 35,1-3).

37. 정신을 어지럽히고 고뇌와 고통에 가득 찬 생각으로 정신을 성가시게 구는 슬픔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제 영혼을 그들이 꾸민 파멸에서, 제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시편 35,17).

38. ‘밤에 악령들이 나타나 칼을 휘두른다’는 위협에 맞서: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뚫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시편 37,15).

39. 악령들이 일으키는 고통을 미리 보여 주는 생각에 맞서:
저는 곧 넘어질 지경이며 저의 고통은 늘 제 앞에 있습니다(시편 38,18).

40. 근심에 빠져 기도에서 영적인 말을 찾고 싶은 영혼에게: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
소서. 주님, 저의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시편 38,22-23).

41. 악령들이 내 몸의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때, 주님께:
당신의 재앙을 제게서 거두소서. 당신 손이 내리치시니 저는 시
들어 갑니다(시편 39,11).

42. 부친의 고령과 모친의 쇠약, 위로받지 못하는 양친의 고통을
눈앞에 그려 보이는 슬픈 생각으로 침울한 영혼에게: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운나 실은 빼어 든 칼이라네(시편 55,22).

43. 수도승생활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나에게 광기와 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강요하는 악령들 때문에 주님께:
주 만군의 주님, 당신께 바라는 이들이 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찾는 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시편 69,7).

44. 주님이 저버리신 사람들에게 대해 악령의 우두머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영혼에게:

제 원수들이 저를 헐뜯고 제 목숨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버리셨다. 구해 줄 사람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시편 71,10-11).

45. 이집트의 원로 복된 마카리우스²⁶⁸도 말씀드렸듯이, 창공을 날아 다니며 사람들을 성벽 밖으로 밀어젓히는 뱀들 때문에 주님께:

당신을 찬양하는 이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소서(시편 74,19).

46. 불순한 악령들이 우리를 두고 떠들어 대는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자, 저들 민족을 없애 버려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시편 83,5).

47. 의롭고 복된 안토니우스가 그리 맞섰듯이,²⁶⁹ 은밀히 공중에 나타나는 혐오스러운 모습의 악령들에 맞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

려다보리라(시편 118,7).

48. 불처럼 피어오른 후 연기로 변해 흩어지는 악령에 맞서: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 이름
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시편 124,7-8).

49. 나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악령에 맞서 주님께:

저들 위에 숯불이 내리고 저들이 급류에 떨어져 일어서지 못하
게 하소서(시편 140,11).

잠언에서

5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이끄는 길은 위험과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생각에 맞서: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 나가면 난 찢겨 죽
어!" 하고 말한다(잠언 22,13).

욥기에서

51. 사탄은 주님의 명령 없이 짐 싣는 동물에게조차 다가갈 수 없
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당신은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면전에서 당신을 찬미할지 보게 될 것입니다(욘 1,10-11).

52. 사탄은 생각을 통해 영혼을 유혹한 후 육체에 대한 권한까지 달라고 하느님께 기를 쓰고 청한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면전에서 당신을 찬미할지 보게 될 것입니다”(욘 2,4-5).

53. ‘악령들은 밤에 별의 모습으로 독방 안에 스며들어 너희 눈과 얼굴을 태운다’는 예언으로 우리를 동요시키는 생각에 맞서 — 이런 유혹을 받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에 항구하며, 악령이 우리를 동요시키려 애쓰는 동안 얼굴을 돌려 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날에다 술법을 부리는 자들, 레비아탄을 깨우는 데 능숙한 자들은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 밤은 새벽 별들도 어둠으로 남아 빛을 기다려도 부질없고 여명의 햇살을 보지도 말았으면(욘 3,8-9).

54. '악령들 때문에 죽음이 네게 오리라'고 예언하는 생각에 맞서:
사람이 죽어도 자기 생명의 날들을 채운 이후에 살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리라(욘 14,14).

미카서에서

55. 과거의 죄들을 들춰내어 보여 주고 내 안에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혼을 공격하는 악령에 맞서:

내 원수야,²⁷⁰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미카 7,8).

나훔서에서

56. 기도 중에 갑자기 팔과 목덜미에 달라붙어 귀를 비벼 대고 코를 자극하는 악령을 남자답게 견디지 못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환난의 날에 당신께 의탁하는 이들에게 좋으신 분, 당신을 존경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나훔 1,7).

즈카르야서에서

57. 심판의 날에 악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종류의 형벌이 내려질지 알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
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
멍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즈카 14,12).

이사야서에서

58. 갑자기 불을 지르고 사나운 목소리로 요란 떨고, 공포에 질릴
때까지 영혼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여 대는 악령에 맞서 —
거룩한 사부 마카리우스²⁷¹도 그렇게 맞섰다:

민족들아, 이것을 알아 두어라. 너희는 패배하리라. 땅 끝에까
지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다시 허리를 동여매어도 패배하리라.
계획을 의논해 보아라. 주님께서 그것을 깨 버리시리라. 결의를
말해 보아라. 성사되지 못하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이사 8,9-10).

59. 악령의 공격을 받아 나약해지려는 영혼에게: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이사 50,5-8).

60. 재산의 일부를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주위의 질책 때문에 낙심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에게: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이사 51,7).

61. 헛된 생각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거룩한 빛이 흐려진 탓에 정신이 확신을 얻지 못하는 영혼에게:

악인에게서 멀어져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공포가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이사 54,14).

예레미야서에서

62. 벽에 나타나는 섬광 때문에 동요하는 영혼에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예레 1,8).

63. 정신을 망자로 가득한 심연으로 이끌고 마음에 혐오스러운 환영들을 아로새기는 슬픔 때문에 주님께 — 이는 영혼이 위험에 처했다는 표지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예레 15,18).

64. 우리 정신을 향해 “곧 너희의 생활방식에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악령들 때문에 주님께: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시되 저만은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예레 17,18).

에제키엘서에서

65. 악령과 대면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동요하는 영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에제 3,9).

마태오복음서에서

66. 악령들은 돼지들에게조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마태 8,30-32).

요한복음서에서

67. 동요와 공포는 신앙이 약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 14,1).

사도행전에서

68.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에 슬퍼하는 영혼에게: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사도 5,41).

로마서에서

69. 유혹들이 야기한 환난에 관하여: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3-5).

70. 유혹이 혹독한 고난을 야기할 거라는 예언에 맞서: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8).

코린토 1서에서

71. 자기 힘에 부치는 유혹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의 생각에 맞서: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1코린 10.13).

코린토 2서에서

72. 까닭 모를 유혹을 받는 영혼에게 — 나는 이를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다. 악하고 무지하여, 악령이 심각한 말로 수도승을 농락하고 공공연하게 뒤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주님께 청하여 우리를 유혹할 힘을 얻는 악령에 맞서 싸운 경험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과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2코린 1,9-10).

73. 내 젊은 시절의 죄를 들추어내는 악령에 맞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74. 세상사 때문에 우리 정신을 깊은 고뇌에 빠뜨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슬픔에 맞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2코린 7,10).

야고보서에서

75. 악령들에 맞서 싸우다가 지친 자의 생각에 맞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야고 4,7).

베드로 1서에서

76. 영혼은 악령의 공격을 받고, 육체는 불치병에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생각에 맞서: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놀라지도 동요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1 베드 3,13-15).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악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느님이시요 우리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분노

창세기에서

1. 선물이 형제의 격렬한 분노를 쉽게 가라앉힌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창세 33,10-11).

2. 완전한 이들의 성공을 목격할 때 일어나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창세 45,24).

탈출기에서

3. 분노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고 싶은 생각에 맞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6).

4. 비방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솟구칠 때: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탈출 23.1).

5. 분노 때문에 형제들을 모욕하고 싶은 생각에 맞서: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탈출 23.7).

레위기에서

6. 증오로 남을 헐뜯거나 미움으로 험담에 귀 기울이는 형제가 생각날 때 — 테바이데의 선견자, 예언자 요한이 말했듯이,²⁷² 재물이 나 음식 때문에 증오가 일어나는 경우와 달리 증오가 사람들의 영광에 기인한 것이라면 뿌리 뽑기가 몹시 힘들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레위 19.17).

민수기에서

7. 완전한 온유가 본성과 무관하다고 믿는 영혼에게: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민수 12,3).

사무엘기 하권에서

8.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때가 곧 주님께서 영혼을 시험하시고자 할 때임을 모르는 영혼에게: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2사무 16,11-12).

시편에서

9. 온유에서는 멀어지면서도, 감히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바라는 영혼에게:

온유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시편 25,9).

10. 분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거스른 사악한 고발과 거짓 의혹을 모으는 영혼에게: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시편 37,8-9).

11. 형제들의 중상으로 동요하고 분노로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거슬러 말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에게 모욕을 준다(시편 50,20).

12. 무시무시한 밤의 환시들이 무절제한 분노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고, 자비와 인내를 통하면 그 환시들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운 정신이 주님께:

당신의 계명이 저를 원수들보다 슬기롭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영원히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로우니 당신 법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시편 119,98-99).

13. 형제들에 맞서 분노하게 한 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인내의 계명이 적힌 영가를 노래하라고 설득하는 악령에 맞서 — 하지만 악령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를 희롱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키지도 못한 그 계명을 노래한다.²⁷³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시

편 137,4).

잠언에서

14.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어리석고 제 구실을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게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한 나쁜 평판들을 모으려는 생각에 맞서:

이웃이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 내지 마라(잠언 3,29).

15. 지상 재물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려는 생각에 맞서: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잠언 10,12).

16. 형제를 비방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험담을 내뱉는 자는 우둔한 자다(잠언 10,18).

17. 형제와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분노 때문에 기도 중에 타락하게 되는 영혼에게: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흠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
도 흠뻑 마시게 된다(잠언 11,25).

18. 가축이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에 맞서: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
다(잠언 12,10).

19.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도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요동치는 영혼
에게:

미련한 자는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지만 영리한 이는 모욕을 덮
어 둔다(잠언 12,16).

20. 형제에게 피해를 주려고 간계를 꾸미려는 생각에 맞서:

속이는 자는 어떤 전리품도 얻지 못하지만 순수한 사람은 귀중
한 재산을 얻는다(잠언 12,27).

21. 정신이 분노하도록 생각들로 정신을 자극하면서 분노의 길을
걷는 영혼에게 — 언젠가는 분노가 모호해지고, 말과 행동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온다. 그래도 이미 흐려진 정신의 흔적은 남
는다.²⁷⁴

의로움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분노를 간직하는 이들의 행로는 죽음에 이른다(잠언 12,28).

22. 인내심을 훼손하고 파괴하며, 재물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는 생각에 맞서 — 그 자리에 온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잠언 14,29).

23. 좋은 뜻으로 우리를 견책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잠언 15,1).

24. 형제들과 다투라고 부추기며 핑계를 대게 하는 생각에 맞서: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에 더딘 이는 다툼을 가라앉힌다(잠언 15,18).

25. 주님 앞에서 비난받을 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에서 유래하는 죄라고 믿는 영혼에게:

불의한 말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순수한 이들의 계획은 주님께서 좋아하신다(잠언 15,26).

26. 화를 잘 내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과 사귀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네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 너 스스로 올라미를 써서는 안 된다(잠언 22,24-25).

27. 불의를 당한 뒤 복수하려는 영혼에게 — 이는 헛것을 사랑하는 영혼의 악한 욕정이다: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잠언 24,29).

28. 제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측은히 여겨 돌보지 않고, 그를 식탁에 초대하여 적개심을 풀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에게: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잠언 25,21-22).

코헬렛에서

29. 성급히 분노로 달구어져 형제들을 마구 거칠게 대하고 싶은 생각에 맞서:

마음속으로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자리 잡는다(코헬 7,9).

30. 분노의 원인은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실 것과 재산
만을 탐닉하는 영혼에게 —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마음에서 떠나
지 않고 정신이 멸망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만다:

네 마음에서 분노를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악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코헬 11,10).

아가에서

31.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끄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령
에 맞서:

큰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아가 8,7).

이사야서에서

32. 우리를 슬프게 한 사람의 마음에 적대적인 말을 퍼부어 상처를
입히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
가는 자들!(이사 10,1).

애가에서

33. 우리를 엄습하는 분노 때문에 주님께:

주님께서는 저의 송사를 맡으시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애가 3,58).

마태오복음서에서

34. 우리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10).

35. 아케디아 때문에 형제를 보고 욕하는 영혼에게: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2).

36. 때린 자에게 분노하고, 처음에 맞았을 때 들었던 생각을 한 번 더 맞으면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마태 5,39).

37. 우리 원수를 미워하고 비방하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마태 5,44-45).

루카복음서에서

38. 형제의 회개가 흡족하지 않아 새삼 격화되는 분노에 맞서: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루카 17,3-4).

요한복음서에서

39. 형제들을 향한 분노를 용인하고 새 계명이라 불리는 사랑의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정신에 맞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로마서에서

40. 사랑과는 상극인 분노의 생각에 맞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
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로마 8,35).

41. 원수들의 몰락을 기뻐하는 질투의 생각에 맞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
로 뜻을 같이하십시오(로마 12,15-16).

42. 화를 간직하면서, 자기를 공격한 자의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되
갚으려는 생각에 맞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로마 12,17).

코린토 1서에서

43.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1코린 6,7-8).

44. 노예 신분이라는 이유로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1코린 7,21-22).

45. 사랑만이 간직한 언어의 진실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의 생각 때문에 길을 잃은 영혼에게: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1코린 13.1-8).

갈라티아서에서

46. 진리에 대한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격노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47. 형제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생각에 맞서: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갈라 6.2).

48. 내게서 많은 재물을 받고도 사이가 멀어지면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라 6.9).

에페소서에서

49. 형제들이 회개 · 두려움 · 찬미, 그리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더는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최상의 조건으로 모든 할 바를 다하고 있는 것을 뵈히 보고도 그들과 화해하지 않으려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 이는 정신을 분노에 계속 붙들어 매어 두려는 악마의 술책이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에페 4,26-27).

50.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한 분노가 야기하는 온갖 종류의 생각에 맞서:

모든 원함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 버리십시오(에페 4,31).

필리피서에서

51.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불평하려는 생각에 맞서: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필리 2,14-15).

콜로새서에서

52. 분노가 일으킨 불로 증상과 거짓을 치유하려는 생각에 맞서:

분노 · 격분 · 악의 · 증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골로 3,8-9).

테살로니카 1서에서

53.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에 맞서: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1테살 5,15).

티모테오 1서에서

54. 주님 계명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분노의 생각으로 헛되게 만드느 영혼에게:

그러한 지시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1티모 1,5).

티모테오 2서에서

55. 생각으로 [이단과] 교리 논쟁을 일삼는 정신에 맞서:

주님의 종은 싸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당한 모욕에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2티모 2,24).

56.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조상과 친척들에게 당한 박해로 말미암아 내게 엄습하는 분노의 생각에 맞서: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2티모 3,12).

필레몬서에서

57. 아쉬울 때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받아 놓고 그것을 되갚아 줄 걱정은 하지 않는 형제에게 분노하려는 생각에 맞서: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필레 18).

야고보서에서

58. 다급히 분노하며 하느님의 의로움을 간구하는 영혼에게: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야고 1,19-20).

59. 정신을 분노로 가득 채워 놓고도 하느님의 지혜로 자기 영혼은 돌보고 싶어 하는 생각에 맞서: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야고 3,17-18).

60. 율법이 '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명할 때,²⁷⁵ 실은 입법자가 율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제정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형제들을 비방함으로써 입법자를 경시해 버리는 생각에 맞서: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야고 4,11-12).

베드로 1서에서

61. 악을 악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으려만 할 뿐, 중상모략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정신에 맞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1베드 3,9).

요한 1서에서

62.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정신에 맞서: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1요한 2,9).

63. 미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형제를 죽이고 싶은 생각에 맞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1요한 3,15).

64.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사랑이라는 첫째 계명을 부정하는 정신에 맞서: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
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요한 4.20).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악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아케디아

창세기에서

1. 손노동을 혐오하고, 그리 힘들지 않으면서도 이익은 더 되는 다
른 일거리를 배우려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창세 3.19).

탈출기에서

2. 압바가 형제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에게 너무 엄격하며 그들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발하게 하는 아
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너희는 주님의 사제를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탈출 22,27).

민수기에서

3. 아케디아의 악령에 굴하여 항구함 없이 진리에 대한 인식의 열매로 배부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영혼에게: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민수 13,20).

신명기에서

4. 아케디아의 악령으로 인해 다시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 것들을 갈망하는 정신에 맞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5. “한 거룩한 원로는 시편 열두 편밖에 몰랐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하면서 독서와 묵상을 단념하게 하고 영적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둬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신명 6,6-7).

6. 사소한 질병에도 아케디아의 악령에 굴복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서는 너희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 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신명 7,15).

7. '아케디아의 악령은 매우 강하여 그가 나를 거슬러 일으키는 생 각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면서 부모와 친척을 찾아가는 영혼에게:

주님께서서는 너희를 거슬러 일어나는 적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나왔다가, 너희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신명 28,7).

여호수아기에서

8.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대신 주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해 성경을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을 설득해 보라고 유혹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여호 1,8).

판관기에서

9. 아케디아가 찾아왔을 때, '왜 주님은 내가 악령들에게 이런 유희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악령들은 왜 때로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또 때로는 멀리 있는 형제들에게 화내기를 강요하면서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는가?'라고 자문하는 영혼에게 — 이것이 아케디아의 악령들이 구사하는 전략이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너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 두신 민족들은 이렇하다. 이는 오로

지, 전에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판관 2,20-3,2).

시편에서

10.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밤에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는 무딘 영혼에게 — 사실 눈물은 아케디아에서 오는 밤의 환영을 떨쳐 낼 훌륭한 치유제다. 예언자 다윗도 자신의 악습에 이 치유제를 지혜롭게 활용했다: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시편 6,7).

11. 내 안에 머무는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하소서(시편 25,18).

12. 내 희망을 무너뜨리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시편 27,13).

13. [주님을] 찬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시편 34,2).

14. 아케디아에 빠져 수도승생활이 자기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희망을 꺾어 버리는 영혼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시편
37,3).

15. 자기가 거주할 다른 장소를 찾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사로잡힌 슬픈 영혼에게: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
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시편 37,34).

16. 마음이 아케디아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들이 기도 중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거룩한 빛을 가린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에게 — 하느님의 종 암모니우스와 나는 그 빛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의 본성이 빛을 발하는지, 그 빛이 정신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밖에서 빛나서 정신을 비추는 다른 무엇이 있는지, 테바이데의 원로 거룩한 요한²⁷⁶에게 물어 보았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사람이 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기도 중에도 정신은 그 빛의 힘으로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제 심장은 팔딱거리고 기운도 제게서 사라졌으며 저의 눈조차
빛을 잃었습니다(시편 38,11).

17. 거룩한 천사들이 잠시 나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정
말 악령들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제 동무들과 이웃들은 저의 재앙을 보고 물려서 있으며 제 친척
들도 멀찍이 서 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덮을 놓고
제 불행을 꾀하는 자들은 파멸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간계를 꾸
미고 있습니다(시편 38,12-13).

18.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희망을 갖아 가,
우리를 향구하지 못하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
를 들으셨네(시편 40,2).

19. 아케디아에 대적해 싸울 때 눈물을 무익한 것이라 여기며 다윗
을 기억하지 않는 영혼에게 — 정작 다윗은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빈정거리
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시편 42,4).

20. 아케디아에 걸려 넘어져 슬픈 생각으로 가득한 영혼에게: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
님(시편 42,6-7).

21. 온종일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싸울 때 주님께: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저를 짓밟고 온종일
몰아치며 억누릅니다(시편 56,2).

22. 내 마음이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

저희는 불과 물을 지났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로의 장소로 이
끌어 내셨습니다(시편 66,12).

23. 형제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출세하여 권력과 명예의 반열에
올랐을 때 우리를 엄습하는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시편 73,28).

24. 아케디아에 빠졌을 때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
각에 맞서: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하느님을 생각하니 즐거워지네. 내
가 말하니 내 일이 아득해지네(시편 77,3-4).

25. 우리 삶이 오래도록 고달프리라 예고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사람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 들의 꽃처럼 피어난다(시편 103,15).

26. 지금 살고 있는 암자가 조악하고 습하여 갖은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다른 암자를 찾으라 유혹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내가 이를 원하였으니 나 여기에서 지내리라(시편 132,14).

27. 내 정신을 괴롭히고 전율케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원수가 저를 뒤쫓아 제 생명을 땅에다 짓밟고 영원히 죽은 이들 처럼 저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제 얼이 속에서 아득해지고 제 마음이 안에서 얼어붙습니다(시편 143,3-4).

잠언에서

28. 손노동을 포기하게 하고 태만하게 몸을 벽에 기대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훌륭한 주자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잠언 6,9-11).

29. 노고와 계명준수를 단념시키는 생각에 맞서:

희망을 약속하고 불붙이는 마음보다 유익하게 되기 시작하는
마음이 더 좋다(잠언 13,12).

30. 형제들에게 사랑이 없고 병자와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외톨이는 변명거리만 찾지만 언제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찰 것
이다(잠언 18,1).

욥기에서

31. 아케디아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에게: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
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욥 5,17-18).

32. 긴 노년, 혹독한 가난, 위로의 부재, 육체를 망가뜨리는 질병을
예고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우
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욥 8,8-9).

33. 우리에게 다른 장소를 보여 주면서 거기에 암자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안식, 그리고 형제들의 위로를 얻게 되리라 유혹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이제 살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혹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혹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욘 10.20-22).

34. 아케디아에 빠졌을 때 자기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사람에게는 자기를 돌봐 주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의 보호는 주님께 있다(칠십인역 성경: 욘 34.9).

미카서에서

35. 세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생각에 맞서: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걸어가리라(미카 4.5).

36. 질병 때문에 아케디아의 악령에 굴복하는 영혼에게: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지리라. 그분께서 나를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시리니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리라(미카 7,9).

이사야서에서

37. 아케디아가 자기를 내리누를 때 참담한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부르짖는 영혼에게: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이사 41,11).

예레미야서에서

38. 나태와 아케디아의 악령이 끊이지 않아서 병고로 여위고 약해진 영혼에게 — 이런 영혼은 낙담에 힘을 잃고 이 악령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희망이 꺾여 마침내 자제력을 잃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과 탄식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음에서 목소리를, 네 눈물에서 네 눈을 보호하여라. 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 네 자

녀들은 적들의 나라에서 돌아오고 그들은 [새롭게] 정착하리라” (예레 31,16-17).

39. 우리의 항구함을 흔들어 기분 전환을 하고 잠시 우리 집과 부모를 방문하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예레 14,7-8).

애가에서

40. 수행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수도승생활은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는 영혼에게: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애가 3,25-26).

41. ‘사람은 수도승생활을 하지 않고도 순수성과 일체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맞서:

젊은 시절에 멩에를 매는 것이 사나이에게 좋다네. 그는 홀로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짐을 지우셨기 때문

이네. 그는 제 입을 먼지 속에 박아야 하네. 어쩌면 희망이 있을 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을 때리는 이에게 뺨을 내주며 수치를 가득히 받아야 하네. 주님께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에가 3,27-31).

다니엘서에서

42. 내게 강하게 맞서는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주님께: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악,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다니 3,35).

마태오복음서에서

43. 육신의 아버지를 방문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8,22).

44. 아케디아로 넘어져 육신의 부모를 찾아 돌아가는 영혼에게: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마태 19,29).

루카복음서에서

45. 그리스도께서는 욕정을 갈망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미워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

사도행전에서

46.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승생활을 받아들인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약하여 죄와 세상의 일들에 과감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부모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유혹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

로마서에서

47. 환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 12,12).

코린토 1서에서

48. 아케디아로 인해 불평에 대답해지려는 생각에 맞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1코린 10,10).

코린토 2서에서

49.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슬퍼진 나머지 바오로 사도가 겪은 시련을 망각하는 영혼에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때를 유대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2코린 11,23-28).

에페소서에서

50. 사부와 형제들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에페 5,20-21).

필리피서에서

51.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성령의 선물임을 모르는 영혼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필리 1,29).

히브리서에서

52. 영혼이 완전한 이들의 거룩한 생활과 자기 거처를 포기하게 하는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히브 10,36-38; 참조: 이사 26,20; 하바 2,3-4).

53. 도시의 부모와 친구들을 찾아가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히브 13,14).

54. 아케디아와 슬픔으로 무너져 악령의 괴롭힘에 넘겨졌다고 생
각하는 영혼에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
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
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
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
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히브 11,36-38).

55. 거룩한 사부들이 자비롭지 않고 형제들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
람들이라는 불쾌한 상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불행한 아케디아의 악령에 맞서: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
님께 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
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히브 13,17).

야고보서에서

56. 자기 내면에서 안정을 방해하는 아케디아의 영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에게: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야고 1,2-4).

57. 정신이 분노로 [제자리]에서 쫓겨날 때나 탐식으로 세속 형제들과 부모 가까운 곳으로 이끌릴 때, 몇 번이나 정신을 갈보고 굴욕을 안긴 아케디아의 악령 때문에 여러모로 타격받는 영혼에게: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야고 1,12).



우리로 하여금

아케디아의 악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헛된 영광

창세기에서

1. 때 이르게 세상으로 나가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수도승 생활로 이끌도록 권유하는 헛된 영광의 악령에 맞서:

달아나 목숨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오.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창세 19,17).

민수기에서

2. 주님께 인식의 선물을 받은 형제에게 시기심을 품게 하는 헛된 영광의 악령에 맞서: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민수 11,29).

3.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사제직에 따르는 위험을 숙고하지도 않고 불순한 생각만으로 사제직을 받기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사제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려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민수 17,4-5).

신명기에서

4. 사람들 때문에 의롭게 행동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너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신명 16,20).

5. 헛된 영광²⁷⁷의 심연으로 이끌면서 영웅적 성공담의 명에 얽매이게 하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신명 22,10).

사무엘기 상권에서

6. 너는 모든 형제들 사이에 평판이 좋다'는 식의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몸입니다(1사무 18,23).

열왕기 하권에서

7. 세속적 영광에 사로잡혀 [수행에] 부적합해진 거주지²⁷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혼에게: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앞에서 지내는 이곳이 저희에게 너무 좁습니다. 저희가 요르단 강으로 가서 저마다 들보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저희가 지낼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거라” 하고 말했다(2열왕 6,1-2).

시편에서

8.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사제직을 예언하는 악령들의 말을 참되다고 믿는 영혼에게: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 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침하기 때문입니다(시편 5,10).

9. 우리 영혼의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형제들이나 세속인들을 가르치라고 부추기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시편 84,4).

10. 정신을 때로는 하느님 재물의 관리자로, 때로는 형제들의 감독자로 세우면서 갖은 잡념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내게서 물러가라, 악을 저지르는 자들아.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시편 119,115).

11. 나를 속일 작정으로 형제들에게서 멀어져 고립되라고 오만하게 권고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거만한 자들이 덮을 숨겨 두고 그물처럼 줄을 펼쳐 놓았으며 저를 잡으려 길 옆에 올가미를 놓았습니다(시편 140,6).

잠언에서

12.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 이런 일은 은둔생활을 하는 수도승들에게 일어나기 쉽

다. 그들은 헛된 영광 때문에 세상일에 연루되어 자기들 앞에서 논쟁하는 저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말이 많은 데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잠언 10,19).

13.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형제들의 으뜸이 되어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라고 유혹하는 생각에 맞서:

사람에게는 바른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잠언 14,12).

14. 성경에 대한 능력을 얻기 전에²⁷⁹ 성경을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다 듣기도 전에 반박하는 자는 어리석음과 비난을 얻는다(잠언 18,13).

15. 너무 어린 사람들에게 은수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헛된 영광에 맞서:

아이도 이미 그 행동거지로 제 행실이 결백한지 올곧은지 드러낸다(잠언 20,11).

16. 우리를 사랑하는 세속인들이 채권자에게 성가시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들에게 기꺼이 빚보증을 서 주라고 유혹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너는 담보 서는 이들 가운데에, 빚보증 서는 이들 가운데에 끼지 마라. 네가 갚을 길이 없을 때 네 밑의 잠자리까지 빼앗기려 하느냐?(잠언 22,26-27).

17. 헛된 영광 때문에 수도승생활의 비밀들을 세상 사람에게 떠벌이는 영혼에게: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식견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잠언 23,9).

18.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²⁸⁰

중상꾼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배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잠언 26,22).

19. 다양한 유혹으로 공공연히 우리를 공격한 후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우리 몸을 맡기라고 유혹하는 악령에 맞서 — 거룩한 예언자 요한²⁸¹도 악령이 헛된 영광을 통해 그것을 달성한다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양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 목소리를 다정하게 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 있다(잠언 26,24-25).

20. 덧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의 탁월한 행위들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생각에 맞서:

네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네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잠언 27,2).

코헬렛에서

21. 침묵해야 할 때 말을 강요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을 권고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코헬 3,7).

욥기에서

22. 사탄도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알아본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욘 1,9-10).

이사야서에서

23. “어디서든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를 유명하게 하리라”고 말하며 마치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악령에 맞서:

그렇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너의 영예를 수치스럽게 하시리라. 너의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 버리시리라(이사 10,16).

24. 사람들에게에서 오는 영광을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보다 더 사랑 하는 영혼에게: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 40,6.8).

예레미야서에서

25. 우리 안에 머물며 가련한 정신을 분노 · 슬픔 · 교만의 악령들 앞에 굴복시키는 헛된 생각들²⁸² 때문에 주님께:

주님, 저를 낮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
으실 분이십니다(예레 17,14).

애가에서

26. 밤이면 양 떼를 치는 꿈을 꾸게 하고, 낮이 되면 ‘너는 사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 따를 것이다’라고 그 꿈
을 해몽하는 악령에 맞서:

내 생명을 구렁 속으로 처넣고 내 위에 돌을 내던졌네(애가 3,53).

다니엘서에서

27. “자, 너희는 곧바로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공격하는 악령에 맞서 — 형제들 가운데 더러는 정말 이런
생각 때문에 심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좌절하였다.²⁸³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
가 오늘 당신을 둘로 베어 버릴 것이오(다니 13,55).

28. 우리가 왕과 수령들 앞에서 지혜로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언지
시 기약하는 악령에 맞서:

주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 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오(다니 13,59).

마태오복음서에서

29.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기보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그러나 [계명들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마태 5,19).

30. 우리에게 온갖 의로운 일을 하게 하면서도 정신을 모호하게 만드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마태 6,1).

31. 순수한 기도 상태에서, 표상이나 환영이 없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 정신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남기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정신에 심어 주는²⁸⁴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 이런 일은 헛된 영광의 욕정에 사로잡힌 정신에게 일어나며, 저

악령은 기도 중에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정신을 이끌고 간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마태 6.5).

32. 탐식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정신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다시 슬픈 모습으로 우리의 단식을 과시하려는 생각에 맞서 — 불순한 악령들은 불시에 덮쳐 정신이 고양되지 못하게 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마태 6.16).

33. 영혼이 헛된 말을 생각해 내도록 강요하고 정신을 일시적인 재물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 이 생각은 우리 안에 욕망이나 분노를 자극하고,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순수한 상태를 파괴하는, 혐오스러운 환영들을 정신에 불러일으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껄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마태 12.36-37).

루카복음서에서

34. 불결한 영들이 우리 영혼에서 떨어져 나감을 기뻐하는 영혼에게: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루카 10.20).

요한복음서에서

35. “자, 네가 받은 치유의 은사 덕분에 너는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속삭이는 악령에 맞서: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 때문이다(요한 8.44).

사도행전에서

36. 돈으로 사제직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악령에 맞서: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 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사도 8,20).

코린토 1서에서

37. 헛된 영광으로 괴롭힘 당하고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3,19).

코린토 2서에서

38. 선행을 과시하고 싶은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2코린 10,17-18).

갈라티아서에서

39. 우리가 수도승 규율을 제대로 지키므로 영혼의 구원과 진리의 인식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우리 부모에게 납득시키도록 권유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갈라 1,10).

히브리서에서

40. 사제직처럼 존경받는 그 무엇을 이루어 내라고 권유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히브 5,4).

야고보서에서

41. 영혼의 구원이나 진리의 인식에 이르기 전에 가르치기부터 하라고 권유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야고 3,1-2).

42. 치유의 은사나 주님께 대한 인식의 은사를 추구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야고 4,3).

요한 1서에서

43. 세상을 좇아 사람들 눈앞에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헛된 영광의 생각에 맞서: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1요한 2,15).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의 악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교만

창세기에서

1. 내가 주님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교만의 악령에 맞서: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창세 3,14).

2. 마치 나를 나무랄 데 없고 더는 불순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찬양하고 추어올리는 교만의 악령에 맞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창세 18,27).

3. 나를 양육하시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의 은혜를 저버리는 신성모독에 맞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 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창세 48,15-16).

탈출기에서

4. 교만한 악령들이 우리가 영적 주제를 탐구하는 것을 보고 무슨 말들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²⁸⁵

그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탈출 5,9).

5. 하느님 구원에 힘입어 교만의 악령의 동료인 다른 일곱 악령을 물리쳤는데, 바로 그 하느님 구원을 거부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우리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탈출 15,1-2).

6. 나의 강한 능력으로 슬픔의 악령을 격퇴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교만 때문에 주님께: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엄위로 적들을 뒤엎으셨습니다(탈출 15.6-7).

7. 천사들은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는 영혼을 교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룩한 천사들을 경멸하라고 괴롭히는 교만에 맞서 —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은 결국 천사들에게 버림받고 다시 불순한 교만의 악령의 수중에 떨어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탈출 23.20-21).

레위기에서

8. 거룩한 사부들이 삶의 방식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도록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 19.32).

9. 정신을 극단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신성모독의 생각에 맞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레위 24, 15-16).

민수기에서

10.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모독적 생각들이 기도에서 표현²⁸⁶의 자유를 앗아갈 때 주님께: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민수 10,35).

11. 인식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그분 계명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들을 알 필요도 없다고 유혹하는 악령에 맞서: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렘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지만 마십시오”(민수 14,6-9).

신명기에서

12.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문을 품게 하는 신성모독적 생각에 맞서:

너희가 마싸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신명 6,16).

13. 계명준수를 방해하는 악령들을 제 힘으로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영혼에게: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신명 8,17-18).

14. 적들을 물리쳐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적합한 사람이라 여기고, 그 인식에 도달하여 그것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
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
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롭거나 마음이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저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이다(신명 9,4-5).

15.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한다. 너는 현자들의 사부다”라고 말하
는 악령에 맞서: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
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도 저주를 받을 것
이다(신명 28,16-18).

16. 자유의지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죄를 짓거나 의롭
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는 신성모독적 생각에 맞서: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
는다(신명 30,15).

여호수아기에서

17. 갑자기 나타나는 천사가 다 주님의 진짜 천사라 여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설령 그 모습이 끔찍하고 무서워도 그의 말이 영혼에게 기쁨과 충만한 평화를 주는 천사만이 주님의 진짜 천사임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 악령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입시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음에 혼란과 동요를 불러일으킨다.²⁸⁷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적의 편이나?”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나리,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여호 5,13-14).

사무엘기 상권에서

18. 하느님의 선을 거부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 주겠느냐?(1사무 2,25).

열왕기 상권에서

19. 무릎을 꿇을 의지도 있고 자세도 갖추었지만, 우리의 항구한 기도를 중단시키는 불경한 악령에 맞서는 데 지친 영혼에게: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지만, 엘리야는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1 열왕 18,42).

열왕기 하권에서

20. 경악스러운 신성모독의 생각들로 공포에 질려 기도할 힘을 잃은 영혼에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뜯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2열왕 19,6-7).

21. 황당무계하고 불경스러운 말로 주님께 맞서는 악령들 때문에 주님께 — 내가 그런 말들을 여기 옮긴다면 아마 천지가 발각 뒤집어질 것이다. 이 악령들은 심한 욕설과 분노를 드러내면서 감히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 맞선다. 당해 본 사람들은 내가 무

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유혹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라. 이때는 단식·성경 독서·눈물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2열왕 19,15-16).

에즈라기에서

22. 승리가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주님께:

당신에게서 승리가, 당신에게서 지혜가, 당신에게서 영광이 왔나이다. 저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저에게 지혜를 주신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선조들의 주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에즈 14,59-60).²⁸⁸

시편에서

23. 내 안에 남아 있는 불경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주님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

럼 이 몸 물어 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시편 7,2-3).

24. 악령들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주님께:

저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시편 36,12).

25. 하느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승리를 자기 능력으로 돌리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주님께:

정녕 저는 제 화살을 믿지 않습니다. 제 칼이 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저희를 적들에게서 구하시고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셨습니다(시편 44,7-8).

26.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허락하는 악령에 맞서 — 이럴 때 우리의 복된 사부 마카리우스²⁰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악인에게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내 계명들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네 입에 올리느냐? 혼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뒤로 팽개치는 너이거늘”(시편 50,16-17).

27. 정신을 에워싸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너희 모두는 언제까지나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를 무너뜨리

려 하느냐? 기우는 벽, 넘어지는 담처럼(시편 62,4).

28. 우리 안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정신에게서 말의 자유²⁹⁰를 앗아가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주님께:

무도한 말들이 저희를 지배했지만, 당신께서는 저희의 불손을 용서하여 주십니다(시편 65,4).

29. 하느님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신성모독의 생각에 맞서: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시편 75,6).

30. 내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감화시켰다고 자화자찬하는 교만에 맞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시편 127,1).

잠언에서

31. 형제들이 계명을 실천하는 데 소홀하다 하여 그들을 비웃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
는 호의를 베푸신다(잠언 3,34).

32. 교활한 악령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 영혼에게:
그들은 불의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잠언 4,17).

33. 형제들이 인식에 있어 나보다 못하다 하여 내가 그들을 방문하
는 것을 꺼리도록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워지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잠언 13,20).

34. 거칠고 집요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형제에게 도움을 받은 형제는 견고한 성읍과도 같고, 기초가 튼
튼한 왕국처럼 강하다(칠십인역 성경: 잠언 18,19).

35. 자기 스스로 순수하고 흠 없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여 죄 없이 결백하다고 누가 말하
랴?(잠언 20,9).

36. 두려움을 현명이라 일컫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행복하여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불행에 빠진다(잠언 28,14).

코헬렛에서

37.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좋은 혈통을 자랑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모두 흠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흠으로 되돌아간다(코헬 3,20).

38. 형제들의 죄를 보게 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코헬 7,21).

39. “보라, 너는 완전한 수도승이 되었다”고 말하는 악령에 맞서:

희망이 있으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코
헬 9,4).

욥기에서

40. 완전한 자를 건강한 겸손에서 병든 교만으로 건너가게 하는
악령들에 맞서:

자네들은 모두 돌팔이 의사들일세(욘 13,4).

41. 신성모독을 강요하는 악령들에 맞서: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욘 13,7).

42. 내게 형제들의 죄를 열거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욘 14,4).

43. 교만의 악령에 사로잡혀 자기 행위가 하느님 앞에 봉헌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자네가 의롭다 하여 전능하신 분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 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욘 22,3).

즈카르야서에서

44. 하늘에 맞서 불경하게 말하도록 강요하는 악령에 맞서: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즈카 3,2).

이사야서에서

45. 나를 현자처럼 치켜세우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이사 5,21).

46. 악령들의 온갖 계락을 일소하고 그 숨은 생각의 사악한 악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께 대한 인식만큼 악령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영혼에게: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이사 19,17).

예레미야서에서

47. 악령들의 신을 숭배하는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에 맞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사라질 것이다”(예레 10,11).

48. “자, 네가 네 원수들을 쳐 이겼구나”라고 말하며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주님께:

주님, 저는 압니다, 사람은 제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예레 10,23).

애가에서

49. 불경스러운 생각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 고통을 주셨다가도 당신의 크신 자애로 가엾이 여기시네.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으시네(애가 3,31-33).

49a. 기도 중에 정신을 압박하는 불경스러운 생각 때문에 주님께:²⁹¹
진노로 몸을 감싸고 저희를 뒤쫓아 오시어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어떤 기도도 꿰뚫지 못하게 당신 자신을 구름으로 감싸셨습니다. 저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물과 폐물로 만드셨습니다(애가 3,43-45).

에제키엘서에서

49b. 스스로를 하느님이라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네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

겠느냐?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에제 28.9-10).

마태오복음서에서

49c. 형제가 부주의하고 게으르다 하여 그를 경멸하고, 교만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이 죄의 심각함을 성찰하지 않는 영혼에게: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 7,3).

49d. 불순한 생각을 양식이라고 거짓말하는 불경스러운 악령에 맞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마태 15,11).

마르코복음서에서

49e. 교만한 생각들로 괴롭힘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쫓아낼지 모르는 영혼에게:

이런 종류의 악령들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마르 9,29).

50. 형제들 중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자의 교만한 생각에 맞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
이 되어야 한다(마르 9,35).

루카복음서에서

51. 하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

52. 자신의 잘못은 정당화하면서, 형제들이 나약함 때문에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

로마서에서

53. 먹지 않는 형제를 업신여기고, 행여 그가 먹기라도 할 때는 [악령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 단식하는 나약한 자로 간주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로마 14,3).

54. 먹는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을 통제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로마 14,3).

코린토 1서에서

55. 기도의 힘으로 더는 탐식의 노예가 아닐뿐더러 분노도 극복했다고 자기를 칭송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1코린 15,10).

코린토 2서에서

56. 사탄도 진리의 천사 모습을 하고 거짓 인식의 스승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영혼에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2코린 11,14-15).

갈라티아서에서

57. 실수로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생각에 맞서: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
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갈라 6.1).

필리피서에서

58. 자기가 마치 계명의 실천을 완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교만
한 생각에 맞서: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
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필리 3.12).

요한 1서에서

59. 마치 자기 정신에 죄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교만
한 생각에 맞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

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1요한 1.8-9).

유다서에서

60. 주님께 궁극적 구원을 요구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유다 24-25).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악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²⁹²

옳기고 나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것들은 오감을 통해 정신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동요시킨다. 그래서 정신은 쉽게 흐트러지고 마음은 늘 불안과 동요를 겪게 된다. 하지만 외부의 대상보다 더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곧 생각들이다. 정신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무수하고 다양하다.

에바그리우스는 악령이 악한 생각을 통해 우리 정신을 공격한다고 말한다. 정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동요시켜 영혼이 순수한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정신을 공격하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은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부단히 전개되는 내적 투쟁이다. 악한 생각을 물리칠 때 정신은 그 본래의 기능인 관상에 전념하게 되고 마음 안에서 순수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4세기 이집트 켈리아 수도승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프락티코스』²⁹³를 우리말로 처음 소개한 것이 3년 전이

다. 이 작품은 수행 생활에 관한 에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덟 가지 악한 생각의 증상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하지만 에바그리우스가 이 여덟 가지 악한 생각을 처음 소개한 작품은 『안티레티코스』*Antirrhētikos*다. 이 작품에서 그는 각각의 악한 생각을 대적할 무기로서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의 성경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시한다.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악령들이 일으키는 생각들을 하느님 말씀이라는 무기로 대적하는 방법인 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고대 수도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과 그 통제에 대한 가르침은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명, 『안티레티코스』는 에바그리우스의 작품 가운데서도 높이 평가받아 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그리스어 원본과 그 단편조차 전해지지 않고 에바그리우스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져 제대로 된 비평본조차 나와 있지 않다. 시리아어와 아르메니아어 사본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사본들을 바탕으로 현대어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역자는 이탈리아 보제 공동체에서 출판한 이탈리아어 역본을 번역 대본으로 썼다. 이 번역본은 프랑켄베르크W. Frankenberg 판본의 시리아어 텍스트²⁹⁴를 바탕으로 하고, 에바그리우스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가브리엘 붕에G. Bunge의 서문을 실고 있다.

고대 서양말의 사고 구조가 현대 우리말의 그것과 너무 달라, 말마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목도 더러 있었다. 그런 대목은 읽기 쉽고 알아듣기 편하도록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애썼다.

이 책을 통해서라도 악한 생각과의 싸움을 위한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령들의 제안을 하느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요즘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에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온갖 악한 생각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늘 하느님을 향하도록 해 주는 이 고대의 방법이 영적 여정에 들어선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성모 승천 대축일
허성석 로무알도 신부

주

서문

- 1 이 서문은 가브리엘 붕에(G. Bunge)의 글["Evagrius Pontikos: der Prolog des 'Antirrhetikos'", in *Studia Monastica* 39 (1997) 77-105]을 약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 2 에바그리우스의 인격에 관해서는 Evagrius Pontikos, *Briefe aus der Wüste*, a cura di G. Bunge, Trier 1986, 17 참조.
- 3 『안티레티코스』는 에바그리우스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졌다. 모든 연구자가 이 작품을 채석장처럼 이용했지만 실제 이 작품에 관한 연구는 없다. 오직 다음 문헌들에서만 개략적인 흔적이 발견될 뿐이다: O. Zöckler, *Evagrius Pontikus, Seine Stellung in der altkirchlichen Literatur- und Dogmengeschichte*, München 1893, 23-24; R. Augst, *Lebensverwirklichung und christlicher Glaube, Acedia – Religiöse Gleichgültigkeit als Problem der Spiritualität des Evagrius Ponticus*, Frankfurt am Main 1990, 32-33; M. O'Laughlin, "The Bible, the Demons and the Desert: Evaluating the *Antirrheticus* of Evagrius Ponticus", in *Studia Monastica* 34 (1992) 201-215.
- 4 일부 선집을 통해 드러나는 단편들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 5 Socrate, *Storia ecclesiastica* IV, 23, PG 67,516B.
- 6 Gennadio, *Scrittori ecclesiastici* XI, PL 58,1066-1067.
- 7 E. Benvéniste, "Études sur quelques textes sogdiens chrétiens", in *Journal Asiatique* 243/3 (1955) 297-337, qui 298-303; *ibid.*, 247/1 (1959) 115-136;

- O. Hansen, *Berliner sogdische Texte*, II. *Bruchstücke der grossen Sammelhandschrift C2*, Akad. Wiss. Lit., Abh. d. Geistes- und Sozialwiss. Ki. Jg. 1954, nr.15, 825-841.
- 8 「프락티코스」(*Praktikos*) 6.
- 9 「반론」(*antirrhesis*)이라는 개념은 코헬렛 8장 1절에서 성서적으로도 증명된다. 에바그리우스는 코헬렛에 관한 해설(*Scholia*)에서 이 구절을 주해하지 않지만 「안티레티코스」 머리말에서는 인용한다.
- 10 니트리아(Nitria), 켈리아(Kellia)와 더불어 고대 이집트 북부의 수도승생활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 — 역자.
- 11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4 참조.
- 12 245쪽 인명 색인 참조.
- 13 참조: G. Bunge, *Das Geistesbet. Studien zum Traktat De Oratione des Evagrius Pontikos*, Köln 1987, 29-43. 이 책에도 이른바 '마음의 기도'에 관한 폭넓은 참고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 14 J. Muyldermans, *À travers la tradition manuscrite d'Évagre le Pontique*, Louvain 1932 (Bibliothèque du Muséon 3) 89.
- 15 「기도론」(*De oratione*) 7-8.
- 16 「기도론」 3.
- 17 참조: *Ep* 4,I; II,2; 25,2.
- 18 G. Bunge, *Das Geistesbet*, 88-109 참조.
- 19 「기도론」 3 참조.
- 20 「기도론」 56 참조.
- 21 참조: *Ep* 4,3; 6,4; 25,6.
- 22 G. Bunge, *Das Geistesbet*, 29-43 참조.
- 23 *Ibid.*, 62-73.
- 24 「기도론」 98 참조. 이런 유의 언급은 에바그리우스의 작품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 25 「기도론」 97 참조.

- 26 G. Bunge, *Vasi d'argilla. La prassi della preghiera personale secondo la tradizione dei santi padri*, Bose 1996.
- 27 G. Bunge, "Der mystische Sinn der Schrift. Anlässlich der Veröffentlichung der Scholien zum Ecclesiasten des Evagrius Pontikos", in *Studia Monastica* 36 (1994) 135-146.
- 28 『기도론』 머리말, 삼부작(『프락티코스』 『그노스티코스』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의 머리말(아나톨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동정녀에게 준 권고』(*Ad Virginem*)도 마찬가지로(G. Bunge, *Briefe*, 179-180 참조), 『수도승에게 준 권고』(*Ad Monachos*)도 요청에 따라 쓴 작품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에바그리우스의 작품들은 온전히 전승되기 어려웠다. 『여러 악한 생각에 관하여』와 같은 다른 작품들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 29 참조: I. Hausherr, "Eulogios-Loukios", in *Orientalia Ghristiana Periodica* 6 (1940) 216-220, ristampato in *Études de spiritualité orientale*, Roma 1969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183) 99-104.
- 30 참조: 『라우수스의 역사』(*Historia Lausiaca*) 38장과 『에바그리우스의 콧트 생애』 E와 F.
- 31 『이집트 수도승들의 역사』(*Historia Monachorum*) 27장(이탈리아어 역본: Rufino di Concordia, *Storia di monaci*, Roma 1991, 171-173) 참조. 여기서 에바그리우스의 또 다른 충실한 벗인 루피누스는 생각들을 식별하는 에바그리우스의 탁월한 은사를 찬양한다. 압바 루키우스도 탄복한 은사다.
- 32 이집트인 마카리우스라고도 한다(『라우수스의 역사』 17장 참조) — 역자.
- 33 요한 콜로보스 혹은 '난장이' 요한에 관해서는 *Vita e detti dei padri del deserto*, a cura di L. Mortari, Roma 1997, 229-245에 나오는 그에 관한 금언들과 생애에 대한 소개 글 참조.
- 34 『라우수스의 역사』 시리아어 판본 73,3-4.
- 35 『라우수스의 역사』 35,5 (Butler, 102): *synodía/hetarireía Euagríou*.
- 36 *Ep* 4,I.
- 37 『라우수스의 역사』 시리아어 판본 73,4; 『라우수스의 역사』 26(에로네는 에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을 맹렬히 비난했다).

- 38 *Ep* 19,2 참조. 여기서 이 작품이 언급된다. 『동정녀에게 준 권고』는 내용상 수녀 세베라로 추정되는 귀족 출신의 한 여성에게 보낸 것이라 여겨진다.
- 39 이 압바 루키우스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근교 에나톤 수도원의 아빠스를 말하는 것 같다(I. Hausherr, “Eulogios-Loukios”, 101 참조). 어쨌든 『안티레티코스』는 독수도승과 회수도승 모두를 염두에 두고 쓰였다.
- 40 참조: 『프락티코스』 머리말 9; A. Guillaumont, in *Évagre le Pontique, Traité pratique*, 113-125.
- 41 에바그리우스는 자기 작품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참조: Evagrius Pontikos, *Praktikos oder Der Mönch*, a cura di G. Bunge, Köln 1989, 67).

머리말에 대한 영적 해설

- 42 『프락티코스』 머리말 9 참조.
- 43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1.
- 44 in *Ecccl* 6,10-12 (Géhin 52).
- 45 in *Prov* 17,2 (Géhin 153).
- 46 in *Prov* 1,32 (Géhin 16).
- 47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Kephalaia Gnostica*) IV,8,2.
- 48 참조: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II,76; V,11.
- 49 『기도론』 113.
- 50 참조: in *Ps* 118,1710 θ ; 57,5 β .
- 51 *Ep* 56,4.6.
- 52 *Ep* 57,4.
- 53 in *Ecccl* 6,10-12 (Géhin 52) 참조.
- 54 『프락티코스』 48.73.83 참조.
- 55 『기도론』 81 참조;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35.86.

- 56 *in Prov* 19,4 (Géhin 189).
- 57 『프락티코스』 45; 참조: 84; *in Ps* 16,11e, ecc.; 『기도론』 10.47ss;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25; III,41.
- 58 *Ep* 18,1-2(참조: *Sk* 18; *Mal cog* r.l. 31); 『프락티코스』 24.
- 59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40; *Ep* 43,2.3.
- 60 *Ep* 43,3(『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40); *in Prov* 5,14 (Géhin 62).
- 61 『프락티코스』 6; *Ep* 25,2.
- 62 『안티레티코스』 II,4-5.
- 63 『안티레티코스』 VIII,3.7.
- 64 *Mal cog* 5.
- 65 『안티레티코스』 VIII,16; 참조: *in Eccl* 6,10-12 (Géhin 52).
- 66 *Ep fidei* 12,41-42; *in Ps* 17,12ξ.
- 67 『프락티코스』 머리말 8; 참조: *Ep* 58,2;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II,41.
- 68 『기도론』 50; 참조: 51.
- 69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49.
- 70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I,3.
- 71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2.
- 72 *Ep* 28,2 참조.
- 73 『프락티코스』 33; *Ep* 11,1.
- 74 『안티레티코스』 VIII,3.13.
- 75 『프락티코스』 1; 참조: *Ep fidei* 4,20-21; *in Prov* 1,1 (Géhin 2); G. Bunge, "Praktike, Physike und Theologike als Stufen der Erkenntnis bei Evagrius Pontikos", in *Ab Oriente et Occidente, Festschrift W. Nyssen*, St. Ottilien 1996, 59-72.
- 76 『프락티코스』 81.
- 77 참조: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41; II,8; III,46; 『프락티코스』 56.
- 78 *Mal cog* 14; 참조: G. Bunge, *Briefe*, 126-139.
- 79 *Mal cog* 1; 참조: *Ep* 39,3.
- 80 *in Ps* 129,3β.

- 81 『프락티코스』 6; *Ep* 18,5.
- 82 *Ep* 25,2.
- 83 『프락티코스』 6.75.
- 84 *in Ps* 71,14 η ; 118,61 $\chi\epsilon$, ecc.; *Ep* 30,1; *in Prov* 6,4 (Géhin 70).
- 85 *in Ps* 88,49 $\chi\gamma$.
- 86 *Mal cog* 18; *in Ps* 142,2 β ; 참조: *in Ps* 39,19 $\iota\alpha$.
- 87 *Ep* 25,2 참조.
- 88 *Ep* 27,4 참조.
- 89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3.
- 90 『프락티코스』 24.
- 91 『프락티코스』 93.
- 92 『프락티코스』 24.
- 93 *Ep* 56,4.5.
- 94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68; *in Ps* 73,19 θ .
- 95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II,90; IV,47.
- 96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44; *in Prov* 20,1 (Géhin 206); *Mal cog* 5.
- 97 『프락티코스』 63 참조.
- 98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V,73.
- 99 『프락티코스』 86; 참조: 『프락티코스』 24.
- 100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4.
- 101 *in Ps* 135,6 γ .
- 102 *in Ps* 104,23 $\iota\beta$.
- 103 *Ibid.*
- 104 *in Prov* 1,20-21 (Géhin 12);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64.
- 105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49; *in Ps* 135,6 γ .
- 106 *in Ps* 135,6 γ ; 참조: G. Bunge, *La paternità spirituale nel pensiero di Evagrio*, Bose 1991, 107-111.
- 107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30.38.
- 108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36.

- 109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47. 그리스어로 이 이름의 형태는 예수(*Jesou̓s*)의 형태와 동일하다.
- 110 참조: *in Ps* 126,1β; *in Prov* 20,2 (Géhin 207); 22,11 (Géhin 241).
- 111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5. ‘팔마의 도시’는 예리코다(신명 34,3 참조).
- 112 참조: 『안티레티코스』 IV,3; 『프락티코스』 59.
- 113 실제로 그리스도는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신 후 유희당하셨다(마태 4,2 참조).
- 114 참조: *in Prov* 9,18a (Géhin 115); *Ep* 55,2.
- 115 *in Ps* 119,7δ.
- 116 *Ep* 14; 20,2 참조.
- 117 『프락티코스』 머리말 8 참조.
- 118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47 참조.
- 119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49.
- 120 *in Prov* 17,2 (Géhin 153).
- 121 『프락티코스』 84.
- 122 Origene, *Omèlie su Giosuè* VI,4. a cura di M.I. Danieli e R. Scognamiglio, Roma 1993, 112-115.
- 123 *Mal cog* 22.
- 124 『수도승에게 준 권고』 107 참조.
- 125 『프락티코스』 89.
- 126 직역하면 ‘소금을 먹다’(*mangia sale*)라는 뜻이다.
- 127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6.
- 128 *in Ps* 2,12δ; 참조: 『프락티코스』 78.
- 129 *in Ps* 28,7ε.
- 130 *in Ps* 80,3α.
- 131 *in Ps* 74,4α.
- 132 *in Ps* 91,14η.
- 133 G. Bunge, *La paternità spirituale*, 46-50 참조.
- 134 *in Ps* 96,4γ.
- 135 *in Ps* 136,9ε.

- 136 in *Ps* 60,3δ(1 코린 10,4 참조).
- 137 in *Ps* 39,3β.
- 138 *Ep* 28,1.
- 139 *Ep* 27,2.
- 140 *Ep* 27,4.
- 141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26.
- 142 『프락티코스』 35-36 참조.
- 143 『프락티코스』 49.
- 144 G. Bunge, *Das Geistgebet*, 29-43 참조.
- 145 *Ep* 4,5.
- 146 『수도승에게 준 권고』 37.
- 147 『동정녀에게 준 권고』 5.
- 148 *Oct sp* 6,18.
- 149 『기도론』 98.
- 150 *Mal cog* 9.16; 『기도론』 98.
- 151 *Mal cog* 15.
- 152 Agostino, *Lettera* 130. *A Proba* 10,20.
- 153 Giovanni Cassiano, *Conferenze spirituali* 9-10.
- 154 in *Ps* 39,3β.
- 155 in *Ps* 147,2α; 참조: 『프락티코스』 81.
- 156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관상을 뜻한다 — 역자.
- 157 『수도승에게 준 권고』 126; *Vita* 11 참조.
- 158 참조: G. Bunge, “Origenismus-Gnostizismus. Zum geistgeschichtlichen Standort des Evagrius Pontikos”, in *Vigiliae Christianae* 40 (1986) 24-54.
- 159 『그노스티코스』 26 참조.
- 160 *Vita* 11.
- 161 *Ep* 52,5 참조.
- 162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7.
- 163 *Sk* 26.

- 164 『기도론』 56-58.
- 165 『기도론』 71.
- 166 in *Ps* 145,8β.
- 167 *Ep* 25,2.
- 168 『기도론』 44.
- 169 『기도론』 127.
- 170 *Sk* 15.
- 171 *Sk* 16; 참조: *Sk* 32-33.34-35.38-39.
- 172 참조: A. Guillaumont, “La vision de l’intellect par lui-même dans la mystique évagrienne”, in *Mélanges de l’Université Saint-Joseph* 50 (1984) 255-262; G. Bunge, *Das Geisthebet*, cc. 4 e 5.
- 173 『안티레티코스』 IV,62; VI,16.
- 174 *Mal cog* 42 r.l.
- 175 『기도론』 27; 참조: 정신의 다섯 가지 감각에 대해 논의하는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II,35.
- 176 *Sk* 23.
- 177 참조: 『기도론』 67.69.74.115 등(에바그리우스는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형태의 감각적 지각을 경고한다).
- 178 in *Ps* 4,7ς 참조.
- 179 P. Géhin, “Evagriana d’un manuscrit basilien”, in *Le Muséon* 109 (1996) 59-85 참조.
- 180 *Ibid.*, 71.
- 181 *Mal cog* 40 r.l.; 참조: *Sk* 23.
- 182 참조: in *Ps* 67,6ε. 하나님의 처소는 순수한 영혼이다.
- 183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8.
- 184 이 책 20-23쪽 참조.
- 185 에바그리우스는 *Mal cog* 25에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이렇게 부른다.
- 186 참조: Atanasio, *Vita di Antonio* 6,4(시편 118,7); 9,8(시편 27,3) p.27; 13,7 (시편 68,2-3) 등.

- 187 『안티레티코스』 IV,47.
- 188 『안티레티코스』 IV,45.
- 189 『안티레티코스』 IV,23.
- 190 『안티레티코스』 II,36; V,6; VII,19.
- 191 『안티레티코스』 VI,16. 에바그리우스와 리코폴리스의 요한의 직접적 관계는 『라우수스의 역사』 35장의 다양한 본문에서 확인된다. 이 장의 본문비평사에 관해서는 G. Bunge, A. de Vogüé, *Quatre ermites égyptiens d'après les fragments coptes de l'Histoire Lausiaque*, Bellefontaine 1994 (Spiritualité Orientale 60) 101-102 참조.
- 192 *Ep* 11,2.
- 193 *in Ps* 136,3β; 『안티레티코스』 V,13.
- 194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2 참조.
- 195 『프락티코스』 27. 인용: 시편 42,6.12; 43,5.
- 196 『안티레티코스』 머리말 9.
- 197 『프락티코스』 48.
- 198 『프락티코스』 5.
- 199 『기도론』 106 이하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이 '근접 싸움'의 예를 몇 가지 든다.
- 200 G. Bunge, *Akedia. Il male oscuro*, Bose 1999 참조.
- 201 참조: 마르 13,34; 잠언 4,23;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I,52.
- 202 에바그리우스는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안토니우스의 생애』 43을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다.
- 203 *Ep* 11,3. 악령은 그들이 일으키는 혼란으로 식별된다. 에바그리우스는 다른 곳에서도 이 점을 언급한다(참조: *Mal cog r.l., riguardo ai sogni*).
- 204 *Ep* 11,4.
- 205 참조: 『프락티코스』 51; 『기도론』 90.
- 206 참조: *in Prov* 2,21 (Géhin 26); 17,2 (Géhin 153) 등.
- 207 *Ep* 2,1; *In Ps* 74,4α; *in Prov* 19,24 (Géhin 203); 20,4 (Géhin 208); 특히 22,5 (Géhin 236).
- 208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V,30; 참조: V,36.38.

- 209 *Ep* 27,4.
- 210 「프락티코스」 4.
- 211 *Mal cog* 24.
- 212 *in Ps* 145,8β.
- 213 *Ep* 4,4; 34,1; *Mal cog* 4.16.26.
- 214 *Ep* 7,1; 참조: *Mal cog* r.l. 24.
- 215 「프락티코스」 23.
- 216 「기도론」 55-58.
- 217 *Mal cog* r.l. 32.
- 218 「기도론」 67.
- 219 「기도론」 119.
- 220 *in Ps* 140,2a.
- 221 「기도론」 3; 참조: 「기도론」 64; 「그노스티코스」 4.
- 222 G. Bunge, *Das Geistgebet*, c. 6 참조.
- 223 「기도론」 71; 참조: *Sk* 2,23; *Mal cog* r.l. 40.
- 224 「기도론」 4.55.
- 225 참조: 「기도론」 3; 4.55.
- 226 「기도론」 59.
- 227 「기도론」 61.
- 228 「기도론」 60.
- 229 *Mal cog* r.l. 23.
- 230 「프락티코스」 58.
- 231 「프락티코스」 58; *in Prov* 17,9 (Géhin 157).
- 232 *Ep* 4,3; 「동정녀에게 준 권고」 4.
- 233 「안티레티코스」 VI,5.
- 234 G. Bunge, *Das Geistgebet*, cc. 1 e 2 참조.
- 235 *Sk* 28-30.
- 236 *Sk* 26.
- 237 「기도론」 98.

238 Sk 27.

239 Ep 29,3; 61,3; 『기도론』 59.70(*dôron*), 87(*chárisma*).

240 Ep 56,2.

241 Mal cog 24. 이 점과 관련하여 에바그리우스가 대(大) 마카리우스의 금언을 소개하는 *Umiltà e misericordia. Virtù di san Macario* 42, 62-63 참조.

242 『프락티코스』 42.

243 악령을 말한다.

244 Mal cog r.l. 23.

245 『프락티코스』 50.

246 『안티레티코스』 IV,40.

247 in Ps 37,22ly. 에바그리우스는 삼중 호칭 — 주님, 하느님, 주님 — 이 암암리에 신성의 동일한 세 본질적 위격을 암시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안티레티코스 - 여덟 가지 생각에 관한 에바그리우스의 답화

248 이 이탈리아어 번역본은 프랑켄베르크의 시리아어 판본(W. Frankenberg, *Evagrius Ponticus*, Berlin 1912, 472-545)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프랑켄베르크 판본은 필사본 명가나(*Mingana*) 68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난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시리아어 텍스트를 원어인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한 그리스어 번역본과도 비교했고, 독일어 역본[L. Trunk, *Antirrheticus magnus. Die grosse Widerrede*, Abtei Münsterschwarzach 1992 (*pro manuscripto*)]도 참조했다. 성경 인용은 에바그리우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칠십인역(LXX)에서 취했고, 구약성경의 장절도 칠십인역에 따랐다.

249 예리코를 말한다. 예리코 정복에 관해서는 Gs 6 참조.

250 직역하면 '소금을 먹다'(mangia sale)라는 뜻이다.

251 여기서 '맞서'로 번역하는 시리아어 *luqbal*은 단순히 방향이나 움직임의 목표, 즉 '~을 향하여', '~으로'로도 옮길 수 있다.

- 252 칠십인역이 히브리 성경 탈출기 38장 8절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한 절을 모호하게 번역한 덕분에 여기서는 단식이 정신의 정화와 연결된다.
- 253 '제6시에'(btsha' sh'in)는 망가나에 따른 번역이다. 프랑켄베르크는 btsha' sh'in을 '제9시에'로 번역한다. 실제 수도승들은 보통 제9시에 하루 한 번 식사했다.
- 254 포만감에 동반되는 성덕에 대한 갈망은 환상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영적 의미로 읽혀지고 인용된 이 성경 구절은 평화의 길을 재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식을 제안한다.
- 255 이런 생각은 물이 간과 비장에 일으킨 피해를 구실로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유혹한다. 이 생각은 67장에서도 인용된,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한 권고(1 티모 5,22-23 참조)와는 거리가 멀다. 26장과 35장에도 같은 생각이 다루어진다.
- 256 팔라디우스가 자기 작품 서문에서 라우수스에게 하는 말도 이런 의도로 보인다. "당신은 경쟁심에 눈이 멀거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가 가져다줄 명성에 현혹되어 자유로운 의지에 맹세의 굴레를 씌우고 그것의 무게에 비참하게 짓눌린 사람들, 삶에 대한 집착과 윤리적 나태와 쾌락 때문에 거저 맹세라는 비극적인 열매를 잉태한 사람들처럼 무분별한 충동이나 성급한 판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맹세로써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라우수스의 역사』 서문 9, tr. it. M. Barchiesi, 11).
- 257 이 경우 수치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축제의 날에 무엇을 더 먹으라고 권하는 교부들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
- 258 이런 수행은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라는 젊고 극단적인 금욕가를 상기시킨다. 『라우수스의 역사』의 콥터 단편에서도 그가 언급된다(참조: G. Bunge, A de Vogüé, *Quatre ermites*, 143). 또한 *Vita e detti dei padri del deserto*, a cura di L. Mortari, Roma 1997, 121의 암몬(Ammone) 4와 *Mal cog* 25와 *Mal cog* r.l. 22에서도 이런 수행이 언급된다.
- 259 음욕에 대한 승리만으로는 아직 욕정의 치유라는 약속된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성경 본문은 자신이 도달한 순수함에 대해 계속 겸손할 것과 음욕에서 헛된 영광으로 건너가지 말 것을 권한다.

- 260 여기서 리코폴리스의 요한도 하느님의 종 포이멘의 경우처럼 자기를 방문 하러 오는 여성들을 직접 보려고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그들과 통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라우수스의 역사』 35 참조). 요한은 『안티레티코스』 V,6과 VII,19에서도 언급된다.
- 261 이러한 유혹은 때로 우리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추구하게 하며, 또 때로는 무분별하게 교제를 단절하게도 한다.
- 262 이 장은 『라우수스의 역사』 17,4에서 언급되는 이집트인 마카리우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 263 20-27항은 밍가나의 번호매김에 따른다. 프랑켄베르크 판본에서 이에 상응하는 번호는 다음과 같다: 20/21; 21/22; 22/23; 23/24; 24/24; 25/26; 26/27; 27/27.
- 264 Ep 28,2 참조.
- 265 프랑켄베르크 판본에는 이 장의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 266 안네스와 암브레스는 유대 전통에 따라 모세를 반대한 이집트 주술사들의 이름이다(참조: 탈출 7,11-12,22; 2티모 3,8). 팔라디우스에 따르면, 켈리아의 사제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는 어떤 정원에 있는 그들의 무덤을 보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라우수스의 역사』 18 참조). 반면 『이집트 수도승들의 역사』는 마카리우스가 수도승생활에 특별히 적합하지만 이미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던 오아시스를 방문했다고 전한다. 연로한 사부들은 이런 마카리우스의 일화와 더불어, 무모한 이전 계획에 열광하는 젊은 수도승들을 단념시키려고 이집트 마법사 두 명이 그 정원을 버려두었다는 소문을 이용했다. 참조: 『이집트 수도승들의 역사』 29 (Rufino di Concordia, *Storia di monaci*, 180); *Detti inediti dei padri del deserto*, nr.488, a cura di L. Cremaschi, Bose 1986, 194. 이 일화의 다양한 판본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G. Bunge, A. de Vogüé, *Quatre ermites*, 35-37 참조.
- 267 『라우수스의 역사』 가운데 에바그리우스의 생애를 다룬 콥트어 단편에도 나오는 말이다.
- 268 이집트인 마카리우스에 관한 묘사는 *Umiltà e misericordia. Le virtù di san Macario* 참조. 여기서 언급되는 금언을 다른 데서는 추적할 수 없었다.

- 269 Atanasio, *Vita di Antonio* 6,4 참조. 여기서 시편 118편은 음육의 악령에 맞서 사용되고 있다.
- 270 바빌로니아나 에돔으로 추정된다.
- 271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금언의 다른 원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 272 『안티레티코스』 II,36; VII,19 참조. 여기서 언급되는 금언의 다른 원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 273 *in Ps* 136,3b 참조.
- 274 원문이 불확실한 추측성 번역.
- 275 참조: 탈출 20,16; 신명 5,20.
- 276 『안티레티코스』 II,36과 V,6에서 언급된 리코폴리스의 요한을 말한다. 이로써 에바그리우스와 리코폴리스의 요한이 직접 접촉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라우수스의 역사』 35장이 재작업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버틀러(Butler)가 선택한 해당 사본에는 팔라디우스의 방문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G. Bunge, A.de Vogüé, *Quatre ermites*, 21, n.23을 보라.
- 277 금욕적 대업(大業)에 전념하려는 결심은 헛된 영광으로 오염될 수 있다. 에바그리우스와 그의 연구에서 보듯이 헛된 영광은 탁월한 수도승들이 몰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우수스의 역사』 25,6).
- 278 정주(定住)가 독수도승에게 근본적 덕목임은 분명하지만, 헛된 영광은 방문객의 증가로 부적합해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위험이 있다. 교만의 위험성을 인지한 안토니우스는 살던 거주지를 포기하고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 더 은밀한 곳으로 떠난다(아타나시우스 『안토니우스의 생애』 49 참조).
- 279 프랑켄베르크 판본의 ‘~않기 때문에’(metul dlo)라는 번역 대신 여기서는 밍가나 판본에 따라 ‘~전에’(‘dlo)라는 번역을 취한다.
- 280 『라우수스의 역사』 17,23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가 이런 유혹에 직면했다고 한다.
- 281 리코폴리스의 요한(『라우수스의 역사』 35 참조).

- 282 여기서는 프랑켄베르크의 '영광의 생각들'(hushabe shubqô)이란 표현보다 명가나의 '헛된 생각들'(hushabe sriqe)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 283 『이집트 수도승들의 역사』 2,9는 이런 형태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한다(Rufino di Concordia, *Storia di monaci*, 70-71). 팔라티우스가 언급한 발렌테, 에로네, 톨로메오의 일화들을 보라(『라우수스의 역사』 25-27 참조).
- 284 『기도론』 72 참조.
- 285 영성생활에 관련된 보다 고상한 문제들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교만의 악령이 부리는 수작이다.
- 286 여기서 사용된 시리아어는 전형적으로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parrhesía*의 한 투사(投射)다.
- 287 에바그리우스에게 흔한 주석이다. 참조: 『프락티코스』 80장과 G. Bunge, A. de Vogüé, *Quatre ermites*, 167에서 에바그리우스의 생애와 관련된 『라우수스의 역사』의 콥트어 단편들.
- 288 칠십인역 성경에만 나오는 그리스어 외경이다.
- 289 켈리아의 사제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라우수스의 역사』 18 참조).
- 290 n.2 참조.
- 291 프랑켄베르크 판본에는 49a-e장들의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다.
- 292 프랑켄베르크 판본은 이렇게 끝난다: “여덟 가지 생각과 성경에서 [뽑은 그에 대한] 반론에 관한 복된 에바그리우스의 이 책은 끝난다. 악령들은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모두 497장이다.”
- 293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프락티코스』 허성석 역주·해제, 분도출판사 2011.
- 294 W. Frankenberg, *Evagrius Ponticus*, Berlin 1912, 472-545.

약어표

에바그리우스의 작품

- Ant** *Antirrhethikos*, in W. Frankenberg, *Evagrius Ponticus*, Berlin 1912.
- Ep** *Epistulae LXII*, in W. Frankenberg, *Evagrius Ponticus*.
Frammenti greci: C. Guillaumont, “Fragments grecs inédits d’Évagre le Pontique”, in J. Dummer (ed.), *Texte und Textkritik*, TU 133, Berlin 1987, 209-221; P. Géhin, “Nouveaux fragments grecs des lettres d’Évagre”, in *Revue d’Histoire des Textes* 24 (1994) 117-147. Tr. ted.: Evagrius Pontikos, *Briefe aus der Wüste*, hrsg. von G. Bunge, Trier 1986 (= G. Bunge, *Briefe*).
- Ep fidei** *Epistula fidei*, ed. J. Gribomont, in Basilio di Cesarea, *Le lettere*, a cura di M. Forlin Patrucco, vol. I, Torino 1983, 84-112. Tr. ted. in G. Bunge, *Briefe*.
- Gnost** *Gnostikos*.
Évagre le Pontique, *Le Gnostique ou À celui qui est devenu digne de la science*, ed. A. et C. Guillaumont, SC 356, Paris 1989.
「그노스티코스」 허성석 역주 『코이노니아』 31, 한국 베네딕도회

수도자 모임 2006, 171-204.

- in Eccl** *Scholia in Ecclesiasten.*
Évagre le Pontique, *Scholies à l'Ecclésiaste*, ed. P. Géhin, SC 397, Paris 1993 (= Géhin).
- in Prov** *Scholia in Proverbia.*
Évagre le Pontique, *Scholies aux Proverbes*, ed. P. Géhin, SC 340, Paris 1987 (= Géhin).
- in Ps** *Scholia in Psalmos.*
Per gentile concessione della Sig.na M.-J. Rondeau, che sta preparando l'edizione critica di quest'opera, utilizziamo la collazione da lei approntata del manoscritto *Vaticanus Graecus* 754. Cf. anche Id., "Le Commentaire sur les Psaumes d'Évagre le Pontique", in *OCP* 26 (1960) 307-348.
- KG** *Kephalaia Gnostica.*
A. Guillaumont, *Les six centuries des "Kephalaia Gnostika" d'Évagre le Pontique*, PO 28, Paris 1958.
- Mal cog** *De diversis malignis cogitationibus.*
Évagre le Pontique, *Sur les pensées*, ed. P. Géhin, C. et A. Guillaumont, SC 438, Paris 1998.
- Mal cog r.l.** *De diversis malignis cogitationibu*, recensio longior.
J. Muyldermans, *À travers la tradition manuscrite d'Évagre le Pontique*, Louvain 1932 (Bibliothèque du Muséon 3) 47ss.
- Mon** *Sententiae ad monachos.*

H. Gressmann, *Nonnenspiegel und Mönchsspiegel des Evagrius Pontikos*, TU 39,4, Leipzig 1913, 152-165.

「수도승들에게」 허성석 역주 『코이노니아』 29, 한국 베네딕도회 수도자 모임 2004, 182-208.

Oct sp

Tractatus de octo spiritibus malitiae, PG 79,1145-1164.

Correzioni e aggiunte a cura di J. Muyldermans, “Une nouvelle recension du *De octo spiritibus malitiae* de S. Nil”, in *Le Muséon* 52 (1939) 235ss. Tr. it.: Evagrio Pontico, *Gli otto spiriti della malvagità. Sui diversi pensieri della malvagità*, a cura di F. Moscatelli, Milano 1996. Tr. ted.: Evagrius Pontikos, *Über die acht Gedanken*, hrsg. von G. Bunge, Würzburg 1992.

Or

De oratione tractatus, PG 79,1165-1200, corretto da Coislin 109 e *Philokalia* I, Athènes 1957, 176ss., di cui adottiamo la numerazione.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허성준 옮김, 생활성서사 2007, 33-78.

Pract

Capita practica ad Anatolium.

Évagre le Pontique, *Traité pratique ou Le moine*, ed. A. e C. Guillaumont, SC 170-171, Paris 1971. Tr. ted.: Evagrius Pontikos, *Praktikos oder Der Mönch*, hrsg. von G. Bunge, Köln 1989.

「프락티코스」 허성석 역주 · 해제, 분도출판사 2011.

Sk

Skemmata.

J. Muyldermans, *Evagriana*. Extrait de la revue *Le Muséon* 44, augmenté de: *Nouveaux fragments grecs inédits*, Paris 1931, 38ss.

Virg

Sententiae ad virginem.

H. Gressmann, *Nonnenspiegel und Mönchsspiegel des Evagrius Pontikos*, 143-151.

「동정녀에게 준 권고」 허성석 역주 『코이노니아』 32, 한국 베네딕도회 수도자 모임 2007, 141-151.

기타 원전

HL

Palladio, *Historia Lausiaca*, ed. C. Butler, Cambridge 1898 e 1904. Tr. it.: Palladio, *La storia lausiaca*, a cura di G.J.M. Bartelink, tr. Marino Barchiesi, Milano 2001°.

HL syr

Id., versione siriana.

R. Draguet, *Les formes syriaques de la matière de l'Histoire Lausiaque*, CSCO 389-390 e 398-399, Louvain 1979.

HM

Rufino, *Historia monachorum in Aegypto*, ed. E. SchulzFlügel, Berlin 1990. Tr. it.: Rufino di Concordia, *Storia di monaci*, a cura di G. Trettel, Roma 1991.

Vita

Palladio, *Vita Evagrii coptice*.

Cf. *Quatre ermites égyptiens d'après les fragments coptes de l'Histoire Lausiaque*, par G. Bunge et A. de Vogüé, Bellefontaine 1994 (Spiritualité Orientale 60).

인명 색인

리코폴리스의 요한	II,36; V,6; VI,16; VII,19
안토니우스	IV,47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우스	IV,23; IV,58; VIII,26
암모니우스	VI,16
이집트인 마카리우스	IV,45

성경 색인

(구약성경 장절은 그리스어 칠십인역에 따름)

구약성경

창세

3,14	VIII,1
19	VI,1
14,22-23	III,1
18,27	VIII,2
19,17	VII,1
28,15	III,52
20-22	III,2
33,10-11	V,1
45,24	V,2
48,15-16	VIII,3
49,14-15	I,1

탈출

2,23-24	IV,1
3,7	IV,2
5,9	VIII,4
22-23	IV,3
6,6-7	IV,4
13,17	Prol 4; IV,5
14,25	IV,6
15,1-2	VIII,5
6-7	VIII,6
9	IV,7
16	IV,8
17,16	IV,9

20,16	V,3
17	II,1
21,17	III,3
22,27	VI,2
23,1	V,4
7	V,5
9	III,4
20	IV,10
20-21	VIII,7
22-23	II,2
29-30	II,3
30,14	II,4
32,33	II,5
38,26	I,2

레위

19,17	V,6
18	III,5
32	VIII,8
24,15-16	VIII,9
25,17	III,6
35	III,7
46	III,8
26,6	IV,11

민수

10,35	VIII,10
11,18-19,20	I,3

29	VII,2
12,3	V,7
13,20	VI,3
14,6-9	VIII,11
17,4-5	VII,3
신명	
1,29-30	IV,12; IV,14
2,24-25	IV,13
3,24	IV,15
4,31	IV,16
6,3	II,6
4-5	VI,4
6-7	VI,5
11 ~-12	I,4
13	II,7
16	VIII,12
7,15	VI,6
17-18	II,8
8,16	IV,17
17-18	VIII,13
9,3	II,9
4-5	VIII,14
12,8-9	II,10
15,7-8	III,9
16,20	VII,4
20,3-4	IV,18
22,10	VII,5
28,7	VI,7
16-18	VIII,15
17-18	III,10
30,11	I,5
15	VIII,16
31,6	IV,19
6.8	III,52
32,15	I,6
33	Prol 3
33,29	II,11

34,3	Prol 5
여호	
1,8	VI,8
9	IV,19a
5,13-14	VIII,17
10,25	IV,20
판관	
2,20-3,2	VI,9
4,14	II,12
5,12	IV,21
8,2	III,11
16,20-21	II,13
1사무	
2,1	II,14
4-5	II,15
25	VIII,18
11,1-2	II,16
16,23	IV,22
17,45	IV,23
47	IV,24
18,23	VII,6
2사무	
3,35	I,7
16,11-12	V,8
1열왕	
8,61	III,12
17,14	I,8
18,42	VIII,19
19,19-21	III,13
20,11	IV,25
21,3	II,17
22,26-27	I,9

2열왕

4,43-44	I,10
38	III,14
5,25-27	III,15
6,1-2	VII,7
16	IV,26
17	IV,27
19,6-7	VIII,20
15-16	VIII,21
23,35	II,18

2역대

36,3-4	II,18
--------	-------

에즈 1

4,59-60	VIII,22
---------	---------

에즈

9,6-7	II,19
11	II,20

욥

1,5	II,43
9-10	VII,22
10-11	IV,51
21	III,36
2,4-5	IV,52
10	I,38
3,8-9	IV,53
4,4	Prol 5
5,14	II,45
17-18	VI,31
7,1	II,44
8,8-9	VI,32
10,20-22	VI,33
13,4	VIII,40
7	VIII,41
14,4	VIII,42

14	IV,54
22,3	VIII,43
34,9	VI,34
10-11	II,46
41,11	II,47

사편

2,4-5	IV,28
3,2-4	II,21
4,5	II,22
5,10	VII,8
6,3-5	IV,29
7	VI,10
9-10	II,23
7,2-3	VIII,23
9,7-8	II,24
11,1	IV,30
13,4-5	II,25
16,5	III,16
17,13	IV,31
18,43	II,26
20,8-9	IV,32
23,1	I,11
25,9	V,9
18	VI,11
27,1-2	IV,33
3	IV,34
10	III,17
13	VI,12
30,12-13	II,27
32,7-8	IV,35
34,2	VI,13
3	III,18
35,1-3	IV,36
4	II,28
5-6	II,29
13	II,30
17	IV,37

36,12 VIII,24
 37,3 VI,14
 8 Prol 3
 8-9 V,10
 10 II,31
 15 IV,38
 25 I,12
 32-33 III,19
 34 VI,15
 38,11 VI,16
 12-13 VI,17
 18 IV,39
 19 I,13
 22-23 IV,40
 39,11 IV,41
 40,2 VI,18
 42,4 VI,19
 6-7 VI,20
 44,7-8 VIII,25
 45,11 III,20
 49,10-11 I,14
 50,16-17 VIII,26
 20 V,11
 51,19 I,15
 52,7 II,32
 55,22 IV,42
 23 I,16
 56,2 VI,21
 62,4 VIII,27
 11 III,21
 65,4 VIII,28
 66,12 VI,22
 69,7 IV,43
 71,10-11 IV,44
 73,28 VI,23
 74,19 IV,45
 75,6 VIII,29
 77,3-4 VI,24

83,5 VI,46
 84,4 VII,9
 11 III,22
 12 III,23
 102,8 I,17
 103,15 VI,25
 109,24 I,18
 118,7 IV,47
 17 I,19
 119,36 III,24
 98-99 V,12
 115 VII,10
 131 Prol 8
 120,7 Prol 5
 124,7-8 IV,48
 127,1 VIII,30
 129,5-6 II,33
 132,3-5 I,20
 14 VI,26
 137,4 V,13
 140,6 III,25; VII,11
 11 IV,49
 143,3-4 VI,27
 144,4 III,26

잠언

1,26-27 II,34
 3,3-4 III,27
 27-28 III,28
 29 V,14
 34 VIII,31
 4,17 VIII,32
 5,20 II,35
 6,9-11 VI,28
 25-26 II,36
 27-29 II,37
 10,3 I,21
 12 V,15

18	V,16	25,21-22	V,28
19	VII,12	26,4-5	Prol 3
11,4	III,29	11	II,39
25	V,17	22	VIII,18
12,10	V,18	24	I,33
11 ▯	I,22	24-25	VII,19
16	V,19	27,2	VII,20
27	V,20	6	I,34
28	V,21	28,14	VIII,36
13,8	III,30		
12	VI,29	코헬	
20	VIII,33	1,2	III,34
14,12	VII,13	13	Prol 1
23	I,23	3,7	VII,21
29	V,22	11	I,35
15,1	V,23	20	VIII,37
18	V,24	5,9	III,35
26	V,25	7,2	I,36
16,16	III,31	5	II,40
17,1	I,24	9	V,29
3	II,38	16	I,37
18,1	VI,30	21	VIII,38
13	VII,14	8,11	Prol 3
19	VIII,34	9,4	VIII,39
19,10	I,25	10,4	II,41
20,1	I,26	11,10	V,30
9	VIII,35		
11	VII,15	아가	
25	I,27	1,6	II,42
22,1	III,32	8,7	V,31
9	I,28; III,33		
13	IV,50	집회	
24-25	V,26	4,21	I,32
26-27	VII,16		
23,9	VII,17	이사	
20-21	I,29	5,20	I,41
31-32	I,30	21	VIII,45
24,29	V,27	8,9-10	IV,58

10,1 V,32
 16 VII,23
 14,30 II,48
 19,17 VIII,46
 26,20 VI,52
 30,20-21 I,42
 32,6 II,49
 40,6.8 VII,24
 41,11 VI,37
 50,5-8 IV,59
 51,7 IV,60
 54,14 IV,61
 58,7 III,37

예레

1,8 IV,62
 10,11 VIII,47
 23 VIII,48
 14,7-8 VI,39
 15,15 I,43
 18 IV,63
 17,14 VII,25
 18 IV,64
 20,12 II,50
 31,16-17 VI,38

애가

1,9 II,51
 11 II,52
 20 I,44
 2,19 II,53
 3,25-26 VI,40
 27-31 VI,41
 31-33 VIII,49
 43-45 VIII,49a
 53 VII,26
 55-57 II,54
 58 V,33

예제

3,9 IV,65
 18,4 Prol 2
 28,9-10 VIII,49b

다니

1,11-16 I,45
 3,35 VI,42
 4,28-29 II,55
 13,55 VII,27
 59 VII,28

미카

2,10 I,39
 4,5 VI,35
 7,8 IV,55
 9 VI,36

나훔

1,7 IV,56

하바

2,3-4 VI,52
 3,18 I,40

즈카

3,2 VIII,44
 14,12 IV,57

신약성경

마태

4,1-2 I,46
 1-11 Prol 2
 5,7 III,38

10 V,34
 19 VII,29
 22 V,35
 28 II,56
 39 V,36
 40 III,39
 42 III,40
 44-45 V,37
 6,1 VII,30
 5 VII,31
 16 VII,32
 19 III,41
 24 III,42
 25 I,47
 7,3 VIII,49c
 12 III,43
 14 I,48
 8,22 VI,43
 30-32 IV,66
 12,36-37 VII,33
 15,11 VIII,49d
 19,29 VI,44
 26,41 II,57

마르

9,29 VIII,49e
 35 VIII,50
 10,23 III,44

루카

3,11 I,49
 4,1-13 Prol 2
 10,19 Prol 2
 20 VII,34
 14,11 VIII,52
 26 VI,45
 17,3-4 V,38
 10 VIII,51

요한

8,44 VII,35
 13,34 V,39
 14,1 Prol 5; IV,67
 15,10 Prol 5

사도

2,44-45 I,50
 5,29 VI,46
 41 IV,68
 8,20 VII,36
 14,22 I,51

로마

5,3-5 IV,69
 8,18 IV,70
 8,35 V,40
 12,8-9 III,45
 12 VI,47
 15-16 V,41
 17 V,42
 13,14 I,52
 14,2 I,53
 3 VIII,53; VIII,54

1코린

3,19 VIII,37
 5,4 Prol 8
 6,7-8 V,43
 9-10 II,58
 7,21-22 V,44
 9,25 Prol 6; I,54
 10,8 II,59
 10 VI,48
 13 IV,71
 13,1-8 V,45
 15,10 VIII,55

2코린

1,9-10	IV,72
4,8-11	I,55
16	I,56
18	III,46
5,1	I,57
10	Prol 7
17	IV,73
7,10	IV,74
9,6	III,47
7	I,58
10,17-18	VII,38
11,14-15	VIII,56
23-28	VI,49
12,10	I,59

갈라

1,10	VII,39
5,22-23	V,46
6,1	VIII,57
2	V,47
9	V,48

에페

4,26-27	V,49
31	V,50
32	III,48
5,5	II,60
18-19	I,60
20-21	VI,50
6,11.13	Prol 6
16	Prol 2
19	Prol 8

필리

1,29	VI,51
2,4	III,49
14-15	V,51

3,7-8	III,50
12	VIII,58
4,5-6	I,61
12-13	I,62

콜로

3,5-6	III,51
8-9	V,52

1테살

4,10-12	I,63
5,15	V,53
17	Prol 6

2테살

3,10	I,64
------	------

1티모

1,5	V,54
2,8	Prol 6
5,22-23	I,67
6,7-9	III,53
10	III,54

2티모

2,4-5	III,55
24	V,55
3,12	V,56

티토

3,2	Prol 6
-----	--------

필레

18	V,57
----	------

히브

5,4	VII,40
10,36-38	VI,52

11,36-38 VI,54
 12,4 Prol 7
 11 I,65
 13,5 III,52
 14 VI,53
 16 I,66
 17 VI,55

야고

1,2-4 VI,56
 12 VI,57
 13-14 II,61
 19-20 V,58
 3,1-2 VII,41
 17-18 V,59
 4,1 II,62
 3 VII,42
 4 I,68
 7 IV,75
 11-12 V,60

1베드

3,9 V,61
 13-15 IV,76
 4,11 III,56
 12-13 II,63
 5,8-9 II,64

2베드

2,9 II,65

1요한

1,8-9 VIII,59
 2,9 V,62
 15 VII,43
 3,15 V,63
 17 III,57

18 III,58
 4,20 V,64
 5,4 I,69

유다

24-25 VIII,60